

E 02-2011-01 | 2011.4 |

제13권 제1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노유경	yknoh@krei.re.kr	02-3299-4280

목 차

1 포커스

- ▶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3
- ▶ 〈자료〉 북한의 식량사정 긴급조사 보고서 19

2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57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92

3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05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05
 - 2. 대북지원 동향 118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120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3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32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37
 - 3. 북중 교역 동향 143

4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전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중요요구 151
- ▶ 논두벌농사를 위한 앞그루작물로서의 감자재배의 유익성 153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자료〉 북한의 식량사정 긴급조사 보고서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조 동 호¹⁾

현재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둘째,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과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보수 진영은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하려는 유인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북한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중국과의 경험 확대는 우리에게 불리하므로 조속히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대북 지원과 경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북한경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플러스 성장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부문과 계획·공식부문의 분리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때문이다. 즉 시장의 허용·확산과 이를 통한 주민·기업의 시장에서의 자구적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가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북한경제가 ‘평균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일며,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는 과거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편 북한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당국이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조만간에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바꾸어 말해서 단기간 내에 북한경제가 붕괴할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jo@ewha.ac.kr

1. 서 론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경제가 조만간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와 당분간 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경우의 대북정책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기란 매우 어렵다. 전망 작업 자체에서 기인하는 부정확성 이외에도 미래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치된 견해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더욱이 미래 전망의 기초가 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현재 북한경제는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경제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결국 경제상황의 향상이든 악화든, 평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모두 관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이며, 따라서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둘째, 보수와 진보 혹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과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보수 혹은 이명박 정부 지지자는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하려는 유인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진보 혹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판자는 북한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중국과의 경쟁 확대는 우리에게 불리하므로 조속히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대북 지원과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도 ‘선정성’ 경쟁에 따라 북한의 경제난 심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즉 본 논문은 현재 북한경제가 “어렵다” 혹은 ‘어렵지 않다

“라는 현상 파악 차원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북한경제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경제의 이중구조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로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 견해는 최근 북한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며, 긍정적 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두 견해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를 시도한다.

가. 부정적 견해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래 경제성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간헐적으로 국제기구 등에 국민소득 등을 통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신뢰도에는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1991년부터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경제의 상황을 추정·발표하고 있다. 2010년 추정치는 전례로 볼 때 올해 6월 경 발표될 전망이다. 2009년의 경우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추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은 북한경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셈이다.

표 1. 200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3	3.7	1.2	1.8	2.2	3.8	-1.1	-2.3	3.7	-0.9

자료: 한국은행.

일부 연구기관들도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2010년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및 지원 중단, 일기 불순, 남북경협 감소 및 지원 축소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0)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2009년 말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생산성 감소로 일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으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남북 경제교류의 감소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5·24 대북조치'에 따라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크게 축소되었다. 예컨대 대북지원 규모는 2010년 33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50%에 그쳤으며, 남북관계가 원만하던 2007년에 비해서는 무려 90% 이상 감소하였다. 남북교역 역시 전년에 비해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경제 파트너인 남한의 경협·지원 축소는 그만큼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표 2. 연도별 대북지원 및 남북교역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억원)	2,982	4,397	1,193	671	332
교역(백만달러)	557	791	808	666	435

자료: 통일부.

북한의 거시경제 대리지표(proxy)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환율이나 쌀 가격 역시 연초에 비해 크게 오른 실정이다. 예컨대 쌀의 경우 연초에 비해 무려 10배 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2010년 북한 평양의 시장 환율 및 쌀값 동향

기간	환율		쌀값	
	시세(원/달러)	증가율(배)	시세(원/kg)	증가율(배)
1월 5일-6일	120	1.0	120	1.0
1월 8일-14일	215	1.8	210	1.8
2월 2일-8일	395	3.3	370	3.1
2월 17일-23일	500	4.2	470	3.9
2월 25일-3월 3일	2300	19.2	950	7.9
3월 2일-8일	2300	19.2	1300	10.8
3월 9일-23일	1100	9.2	700	5.8
3월 26일-4월 1일	600	5.0	200	1.7
4월 1일-7일	700	5.8	450	3.8
4월 8일-26일	1000	8.3	500	4.2
4월 26일-5월 6일	900	7.5	400	3.3
5월 7일-5월 25일	1000	8.3	450	3.8
6월 26일-7월 5일	900	7.5	550	4.6

(앞면에서 계속)

기간	환율		쌀값	
	시세(원/달러)	증가율(배)	시세(원/kg)	증가율(배)
7월 7일-13일	900	7.5	600	5.0
7월 15일-21일	1580	13.2	900	7.5
8월 4일-10일	1400	11.7	1050	8.8
8월 25일-31일	1400	11.7	1050	8.8
8월 31일-9월 6일	1500	12.5	1100	9.2
9월 30일-10월 6일	1300	10.8	900	7.5
10월 12일-18일	1300	10.8	800	6.7
10월 26일-11월 1일	1350	11.3	900	7.5
11월 24일-11월 30일	1400	11.7	750	6.3
12월 7일-13일	1750	14.6	1250	10.4
12월 17일-23일	2000	16.7	1100	9.2

자료: 데일리 NK.

일부 NGO와 언론 역시 ‘심각한 경제난’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대북 인권·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은 올해가 ‘고난의 초강행군’이라며 ‘심각한 식량난’과 함께 다수의 아사자·동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자유 북한방송」은 2011년 3월 1일 “황해북도 사리원과 남포시 일대에서 식인 인간이 나타나 꽃제비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나. 긍정적 견해

우선 정부는 북한에 경제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볼 때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의 경제난으로 인한 시위 발생 보도에 대해 2011년 2월 23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특정지역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집단시위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2011년 3월 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작황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북한이 2012년을 앞두고 잔치용 식량을 비축”하려는 것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부문이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작년 여름 신의주 등의 지역에서 커다란 홍수를 겪었지만 식량생산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토벤 두에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신의주 지역의 홍수에 대해 거론하면서 “전국적으로는 (피해지역이) 좁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07년의 수해와 비교할 때도 “덜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²⁾ 오히려 FAO/WFP(2010)는 201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조곡기준 533만톤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준이다. 물론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다. 평가

지난 수년간 북한경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평가한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플러스 성장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부문과 계획·공식부문의 분리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시장의 허용·확산과 이를 통한 주민·기업의 시장에서의 자구적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가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과거에는 북한경제가 ‘하나’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라는 ‘둘’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국가가 배급을 못 주면 주민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시장의 존재·확산으로 인해 배급 없이도 주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종의 대안이 생긴 것이다. 시장에서의 장사뿐만 아니라 짐꾼, 짐 보관, 음식 좌판, 자전거 수리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기회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기업 역시 시장에서의 조달 및 판매를 통해 가동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돈 있는 개인과 결탁한 위탁경영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위성에서 촬영한 북한 시장을 보면 지난 수년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미 북한 주민의 약 90%는 이미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한경제는 거시경제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밀가루 100원 어치가 공급되면 주민은 이를 그냥 식량으로 사용했지만, 이

2) 『연합뉴스, 2010년 8월 26일.

제는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 12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고 이는 20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로 창출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그만큼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천암함 폭침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조치’는 북중경협의 증가로 인해 효과가 대부분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북중무역은 34.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이며 전년 대비 29.3%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9% 증가했으며, 특히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과의 의류 임가공 역시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고 그 규모는 남북 임가공 축소분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 모두 생산재인데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에서 2010년 광물성연료(원유)의 수입이 200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단가 하락에 따른 것일 뿐 물량은 큰 변화가 없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북한경제가 ‘평균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북한경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는 과거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아졌지만, 지역적으로든 계층적으로든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국가의 보장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므로 생활이 과거에 비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표 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2007	2008	2009	2010
1	광물성연료(HS27)	402(15.7)	586(45.8)	223(n.a.)	479(-18.3)
2	보일러와 기계류(HS84)	104(25.0)	145(40.1)	99(n.a.)	245(69.0)
3	전기기기, 장비(HS85)	69(-29.0)	101(45.3)	71(n.a.)	191(89.1)
4	차량 및 부속품(HS87)	52(35.4)	89(46.6)	69(n.a.)	160(79.8)
5	플라스틱류(HS39)	54(92.1)	67(25.4)	44(n.a.)	84(25.4)
	기타	711	1,045	1,382	1,119
총 계		1,392(13.1)	2,033(46.0)	1,888(n.a.)	2,278(20.7)

주 1: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증가율인데 2009년 8~11월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2: 2010년의 경우 2009년의 통계 문제로 인해 2008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

자료: 이영훈(2011), p.47.

그 결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활발히 운영되는 시장이나 시장 참여로 인해 부유해지고 있는 계층을 관찰하면 과거에 비해 북한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계층을 관찰하면 과거에 비해 북한경제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북한당국의 대응 : 모순적 태도

비록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의 개선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제상황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시장 활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계획·공식부문의 축소·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활동의 증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산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2012년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강성대국의 핵심인 ‘인민생활의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시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당국의 딜레마가 있으며, 현재 관찰되는 윤회와 도발의 모순적 태도도 이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작년부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제로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의 경우 제목에서부터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라고 설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올해를 ‘경공업의 해’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인민생활 향상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아무리 북한당국이 2012년에 경제강국이 건설되었다고 선전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발전, 즉 실제 생활에서의 수준 향상이 없다면 주민들은 쉽게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 지도자가 강조해 온 경제강국 건설 과제가 결국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판단함으로써 북한당국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저하라는 정치적 부작용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더욱이 이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자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인민생활 향상이 최대의 화두로 제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

가활동의 최고원칙이며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 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 심지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선전하기 위해 2011년 1월 7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된 선전화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의 제목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희천발전소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자!’ 등 인민생활과의 연관을 강조하고 있다.⁴⁾

물론 인민생활 향상이 올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민생활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는 특징은 보인다. 예를 들어 2001년 공동사설은 “인민적시책이 실제적으로 커다란 은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도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강조는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보다 강화된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인민생활 향상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과 동격의 과제로 제시된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인민생활 향상 자체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한다.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은 인민생활 향상이 북한당국의 ‘최고 원칙’이며, “오늘의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공동사설에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북한정권 수립 이래 최초로 사용되는 용어로까지 발전한다. 경제분야에서 제일주의라는 용어는 1993년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2000년대에 이처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이 있어야만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으므로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2000년대 초 어쩔 수 없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3) 리광남(2009).

4) 『로동신문』, 2011년 1월 7일.

시행하고 종합시장을 허용하는 등 국가가 주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여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인민생활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공업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경공업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었던 농업은 올해에는 평년 수준의 언급에서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비료의 추가적 투입이나 식량의 해외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업을 강조해봐야 증산이 불확실한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부문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된다. 선행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데다가 2012년을 앞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경공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 경공업을 강조하는 수준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이다. 글자 수를 기준으로 올해 공동사설에서 경공업에 대한 논의가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의 약 10%, 경제분야의 약 1/3일 정도이다. 북한이 사상 처음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1989년의 신년사의 경우에도 경공업에 대한 강조는 양이나 수준에 있어서 올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중요시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공동사설은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초미의 과제’라고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경공업을 대하는 립장은 인민에 대한 태도, 당을 받드는 자세, 혁명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면서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 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힘있는 당조직, 살아움직이는 당조직이 될것을 바라고있다”면서 당의 활동에서조차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결국 현재 북한당국에게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은 최고의 정책 화두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강성대국 건설로 자신의 시대를 화려하게 마감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이 ‘주체강국을 건설한 위대한 수령’이라면 자신은 ‘강성대국을 건설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즉 경제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과제 실현에 기여해야 자신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건설을 약속한 강성대국은 ‘아무런’ 강성대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북한당국으로서는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 계획·공식부문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최근 북중 경협의 증가,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지원의 요청 등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이 절대적 어려움의 해결 차원이 아니라 계획·공식부문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유화 제스처와 함께 도발을 시도하는 ‘모순적’ 태도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4. 미래 전망 : 개방으로의 진전

이처럼 북한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당국이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조만간에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시장은 완전히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계획·공식부문이 완전히 붕괴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석기 외(2010)는 아직 공식부문이 북한경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식부문의 생산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제정책, 즉 대내적으로는 선군논리 하에서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계획·공식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전개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제 일 년여가 남은 강성대국 건설 선언 이전에 북한경제가 붕괴할 정도의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최근 중동에서 전개된 ‘재스민 혁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문제는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한 이후 북한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강성대국 건설 이후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김정은 체제에서 단기간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는 단기 전망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전망은 향후 3~5년에 대한 것일 뿐,

1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점진적인 개방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에 대해 논의한다.

가. 김정은 체제의 ‘성장’ 슬로건

2012년 강성대국 선언 이후 출범하게 될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슬로건을 필요로 할 것이다.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슬로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의 선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일의 ‘선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 최대 우방이었던 소련은 갑자기 무너졌고, 혈맹이었던 중국은 남한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김일성은 갑자기 사망했다. 또한 당시 남한의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라며 비유하면서 붕괴에 따른 흡수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연이은 홍수와 가뭄은 온 나라 전 인민을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시대가 왔지만, 정작 김정일은 나타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내외의 환(內憂外患)이자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이 할 수 있는 것이란곤 아버지의 시신 뒤에 숨는 것밖에 없었다. 겉으론 효자의 3년상이었으나,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비겁함이었다.

1998년 김정일은 자신의 시대를 상징할 슬로건으로 ‘선군’을 채택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의도였다. 개방·개혁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방향이었고 그것만이 ‘조국’과 ‘인민’을 살리는 길이었지만, 그에게는 죽음의 길에 다름 아니었다. 치사하지만 일단은 자신과 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주체보다 훨씬 더 수세적인 전략이었고, 그만큼 북한 주민에게는 하염없이 슬픈 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처한 상황은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 러시아는 살아났고, 중국은 G2로 부상했다. 등거리 외교라는 명목 하에 남한을 편들던 시절은 지나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오히려 두둔하고 지원하는 관계로까지 복원되었다. 심지어 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조차 적극 후원한다. 시장에 맡긴 탓이긴 하지만, 경제도 최악의 시절에서 벗어났다. 남한 정부도 급작스런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어느 모로 보나 사정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던 시기에 비할 데 없이 좋아졌다.

따라서 김정일의 ‘선군’은 대내외적 환경이 최악이던 시절에 제시된 생존논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게 개선된 환경에서 출범하게 될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념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강성대국을 건설했다고 선포한 상황에

서 생존의 슬로건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성장’, ‘발전’의 슬로건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슬로건이 어떻게 설정되든, 이는 개방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장과 발전은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대내적으로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은 외부에서 유입되어야만 한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정권의 보호 차원에서 개혁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소극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개방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지도부는 이미 2010년 김정일의 방중시 개방을 요구했었고,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그 요구의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나. 북한 주민의 요구

이미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시장을 떠나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계획·공식부문을 정상화하려 노력한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를 통해 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본의 유입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김정은 체제에서도 당분간은 시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시장의 효율성을 경험한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은 그 자체의 동력으로 인해 점차 커지게 되며, 이는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당국도 2005년부터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수시로 취해 왔으며 2010년 초에는 시장을 폐쇄한다는 방침까지 발표하였으나, 결국 소위 2010년 ‘5·26 조치’를 통해 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였다. 장사는 24시간 허용되고 금지품목 제한도 없어졌으며 2007년부터 강력하게 통제해 온 상인의 나이 제한도 철폐되었다.⁵⁾ 정은이(2010) 역시 회령시장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회령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변화하였으며 시장의 자리 값 역시 더욱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회령시 주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하층계급의 90% 이상이 시장에서의 장사를 통해 가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장에서 김일성에게서 받은 각종 선물과 이름이 새겨진 시계도 매매될 정도라는 보도도 있다.⁶⁾ 2009년 말 화폐개혁

5) 박영자(2010), p.161.

직후 함북 무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시장세 납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보도 또한 시장이 얼마나 커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⁷⁾

이와 같은 시장의 존재·확대는 그 자체로서 계획경제로의 완전 복귀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의 존재·확대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개방과 맞물려 있다. 즉 북한경제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자를 생산·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의 판매물품은 상당부분 무역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는 개방을 통해 시장의 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다. 중국의 개방 지원

향후 10년간은 중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다. 이미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2021년을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 ‘사회주의 조화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해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인민의 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민공정(富民工程)’을 시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개방·개혁 30년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저비용의 안정된 외교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의 동시 추진을 의미한다. 즉 향후 중국은 국내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강화를 선언하면서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라는 이름으로 동맹, 파트너십, 지역기구를 통해 이 지역의 경제 발전, 지역안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국 가치의 확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격히 커

6) 『데일리안』, 2011년 1월 4일.

7) 『뉴데일리』, 2011년 1월 3일.

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역내 동맹체제의 강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견지, 아세안·인도 등 중국 인접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G2라는 단어 역시 중국위협론의 변형으로서의 중국책임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지역 기반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가 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야단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게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정의, 비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역학의 문제인 것이며, 주변국에 대한 선린우호정책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깨진다는 것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유인이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 강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이 현재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할 경우 북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에게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김정의 체제가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만약 개방이 북한 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의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지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도 정세 평가와 2011년도 전망: 국제정세·남북한 리광남,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과업”, 『경제연구』 3호, 2009.
- 박영자,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

- 국정치연구』 vol.19 no.3, 2010.
-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산업연구원, 2010.
- 이영훈,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분석”, 『통일경제』, 제1호, 2011.
- 정은이,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두만강프로젝트 : 북한의 국경지역 시장에 대한 연구 1: 회령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10.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제 통합의 길』, 2010.12.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11.16.

〈자료〉

북한의 식량사정 긴급조사 보고서¹⁾

WFP/FAO/UNICEF 합동조사단

번역 및 정리 : 노유경²⁾, 김영훈³⁾

개요

- 북한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일련의 충격을 겪었고, 식량 위기에 대해 몹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식량배급시스템(PDS)의 식량은 5~7월 시즌(춘궁기) 초반에 바닥날 것이다. 이는 영양실조 및 다른 질병들의 위험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식량이 부족한 군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 양자 간 원조의 감축, 농업생산과 상업적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6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적인 식량 원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 식량 안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 가구, 결핵과 같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겪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 조사단은 610만 취약계층에 곡물 총 29만 7천 톤과 13만 7천 톤의 영양강화배합식량(fortified blended foods)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식량수급이 가장 불안정한 북쪽과 동쪽의 다섯 개 지방(도)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 다른 지방(도)의 식량부족 지역(군)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울 것을 제시했다.

1) 이는 WFP/FAO/UNICEF가 지난 3월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1.3.24)”를 번역·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11월 조사결과보고서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0.11.16)”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동시에 다른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연구원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식량배급 시스템에서는 1,314kcal에 상응하는 1인 하루 평균 381g의 쌀과 옥수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일일 최소에너지 요구량의 절반 정도만을 충족시키는 양이다.
- 최근 식량배급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 의존하거나 하루 식사소비량을 줄이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산채(wild vegetables)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삭감된 배급량에 대처하고 있다.
- 2010/11년 총 주요 식량 생산량(staple food production)은 대략 425만 2천 톤으로, 작년 11월에 보고된(CFSAM 2010) 것보다 23만 2천 톤 줄어들었다. 이는 겨울의 지속된 추위로 겨울밀과 봄보리, 봄감자의 수확량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 겨울에 보관된 씨감자의 손상도는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단은 2011년 봄 생산량이 계획했던 것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 겨울철 식단에서 중요한 배추와 무⁴⁾의 생산량은 8월과 9월 초의 극심한 홍수 때문에 감소되었다.
- 2010/11년 양곡연도 동안 108만 6천 톤의 곡물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2010년 조사에 의해 예상된 86만 7천 톤 보다 21만 9천 톤 높은 수치이다.
- 2010/11년 북한의 상업적 수입 예정물량은 국제적으로 더 높아진 식량 및 연료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축소되었다. 북한 정부는 최근 2010년 10월 조사에 의해 알려진 32만 5천 톤보다 12만 5천 톤 줄어든 20만 톤의 곡물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1월 말까지 정부는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만 톤 중 4만 톤만 수입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양자 간 식량 원조의 축소는 식량과 영양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 병원, 탁아소, 초등학교, 지방 의원뿐만 아니라 유아원, 고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숙사에서 물 공급과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
- 중·단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구제역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감자 저장, 곡물건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역자 주)원문에는 '김치'

-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보고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보고 세부사항

식량지원을 위한 북한 정부의 요청에 대응하여 WFP, FAO, UNICEF는 긴급식량안보평가조사(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RFSA)를 실시하였다. 2월 초, 북한 내에서 WFP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WFP 북한사무소 직원들이 식량조사에 착수하였다. 2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WFP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5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월 21일에서 3월 11일까지는 WFP, FAO, UNICEF로 구성된 UN기관 합동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2011년 겨울/봄 식량 생산 및 식량지원 필요량을 산정하고, 2010년 FAO/WFP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조사(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를 바탕으로 하여 2010/11년 곡물수입 필요량 및 도입능력 관련 조사내용을 갱신하였다. 조사단에는 미국 NGO의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으며 조사원들은 식량 및 영양상태 조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북한의 총 11개 시·도 중, 9개 시·도의 40개 군을 방문했다. 여기에는 WFP가 활동하지 않는 20개 군이 포함되었다. 평양시와 남포시는 현장방문을 수행하지 않았다. 방문한 도와 군은 다음과 같다.

- 양강도 : 백암군, 삼지연군, 보천군
- 함경북도 : 무산군, 연사군, 부령군, 경성군, 명간군, 명천군 / 청진시
- 함경남도 : 장진군, 신흥군, 리원군, 함주군
- 강원도 : 안변군, 판교군, 법동군, 세포군 / 문천시, 원산시
- 자강도 : 송원군, 동신군 / 희천시
- 평안북도 : 향산군, 의주군, 운전군 / 정주시, 신의주시
- 평안남도 : 정주군, 평성군 / 덕천시
- 황해북도 : 사리원군, 은파군, 장풍군, 금천군, 곡산군, 신평군 / 개성시
- 황해남도 : 웅진군, 간령군, 청단군, 태탄군 / 해주시

조사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과 높은 영양실조 수치를 보이고 있는 도를 포함하여 충격을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4개 팀으로 나누어진 조사단은 14일이라

는 충분한 시간 동안 각 도를 방문하였다.

조사단은 탁아소, 소아과 병원, 고아원, 식량배급소, 군(county) 곡물 저장시설, 협동농장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인터뷰했다. 조사단은 국가, 도, 군, 협동농장, 도시의 인민반 등 다양한 단위들에서 정부 대표들을 인터뷰했으며 도시(읍, 동)와 농촌(리)의 122개 가구를 인터뷰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뷰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 내 가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조사단은 국영상점, 도 중심지의 일일 시장, 군 중심부의 10일장(농민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 요원들은 또한 결핵 요양원을 방문했다. 조사단은 감자 저장시설과 겨울밀 생산지역을 방문하고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UN기관 직원, EU의 프로젝트 지원 단위,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교 조사단과 NGO, 그리고 국가·도·군 단위의 정부 공직자 등이 함께 토의했다.

북한 정부는 조사단에게 작물 생산량, 인구분포, 양자 간 식량 원조, 곡물수입, 식량배급시스템의 식량 이전 및 배급 수준, 기상 기록, 기타 연관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공식 데이터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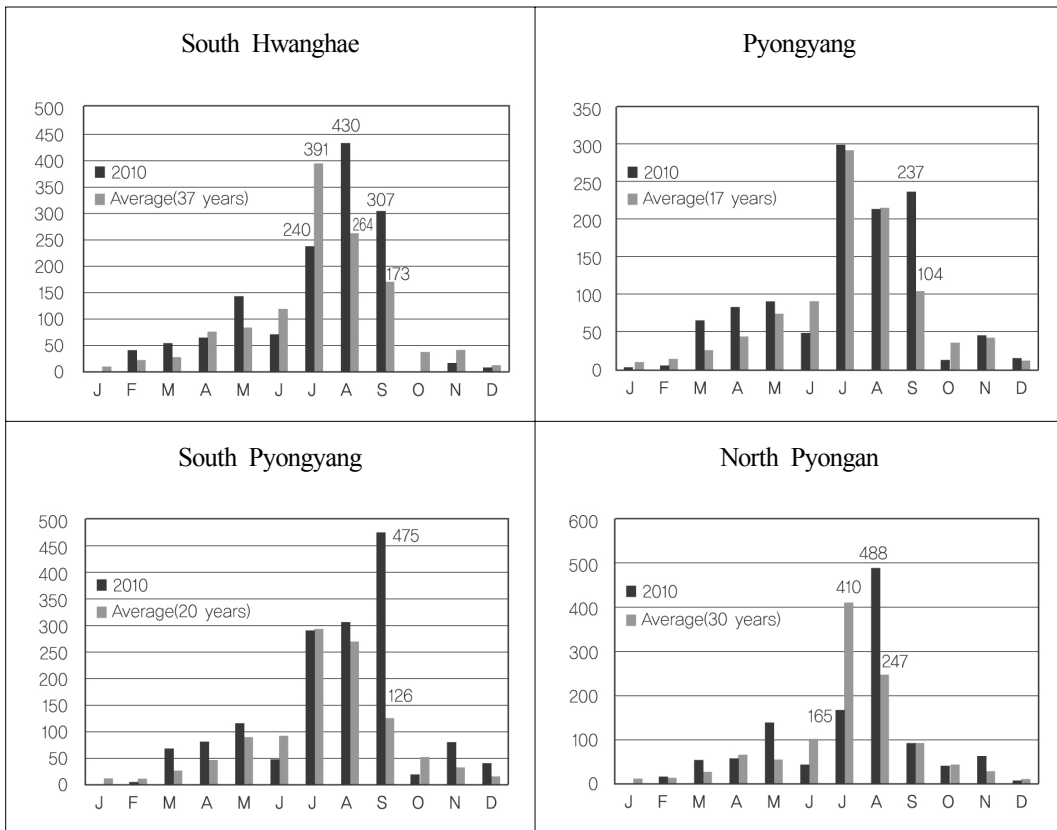
2. 주요 문제

2.1. 8, 9월의 폭우

쌀과 옥수수는 5월부터 9월까지 생육된다. 작물 성장 및 수확의 끝 무렵 내린 폭우는 쌀과 옥수수 생산량과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벼의 도정율은 벼의 미숙과 저품질 때문에 평소보다 낮았다.

2010년 9월의 강우량은 황해남도(78%), 평양(128%), 평안남도(277%)의 장기 평균 강우량에 비해 훨씬 높았다. 8월에는 강우량이 황해남도(63%), 평안북도(98%)에서 높았다. 선택된 4개 도의 장기 평균 강수량과 2010년 월별 강수량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4개 지방에서의 2010년 월별 강수량 및 평균 강수량



2.2. 2010/11년 겨울의 지속된 추위

2010/11년의 겨울은 평소보다 더 춥고 오래 지속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든 도에서 월별 평균 기온은 2년 전의 월별 평균 기온보다 낮았다. 2010년 12월의 평균 기온은 2도 더 낮았다. 2011년 1월에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낮아 그 차이가 더 컸다.

EU 집행위원회의 합동조사센터(Joint Research Centre)가 수행한 분석에서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평균 기온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온은 강원도, 개성,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 등 남부 지역에서 평균과 최소 수치에서 최대 4도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은 남한과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 특히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서 2011년 1월 평균 기온은 2010년보다 몇 도 이상 더 추웠다.

표 1. 12월 및 1월의 평균 기온 (2008/09~2010/11년)

지역	12월				1월			
	2008 (A)	2009	2010 (B)	A와 B의 차이	2009 (C)	2010	2011 (D)	C와 D의 차이
평양	-1.8	-3.2	-3.8	-2	-4.7	-4.5	-9.1	-4.4
평안남도	-1.9	-3.3	-4.6	-2.7	-4.6	-4.5	-9.6	-5
평안북도	-3.8	-6	-5.9	-2.1	-5.1	-6.7	-10.3	-5.2
자강도	-7.9	-9.2	-10.6	-2.7	-11.4	-12.8	-15.9	-4.5
황해남도	0.5	-1.2	-1.7	-2.2	-2.4	-2.8	0.5	2.9
황해북도	-1.3	-3.1	-3.5	-2.2	-4.6	-4.4	-9.8	-5.2
강원도	1	-0.4	-0.8	-1.8	-2.1	-3.9	-5.1	-3
함경남도	-1.4	-1.4	-2.7	-1.3	-3.5	-2.2	-6.6	-3.1
함경북도	-1.8	-3	-3.9	-2.1	-4.3	-3.8	-6.9	-2.6
량강도	-13.2	-3.2	-13.8	-0.6	-15.5	-10.7	-19.2	-3.7

자료: 북한 정부

2.3. 농업 생산량에 대한 영향

〈겨울밀〉

11월부터 2월까지 불충분한 강수량으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했고, 12월과 1월 기간 동안(연속 40일) 지극히 낮은 기온 등 날씨 상황들에 의해 2010/11년 겨울밀 생산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9월과 10월에 습도가 높아 겨울밀의 파종이 늦어졌고 발아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사원들과 북한의 농학자들은 평균 생존율이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고,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수확량은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겨울밀은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도)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겨울밀의 생존율이 낮아져, 농민들은 봄에 식재하는 감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겨울밀은 6월 하반기에 수확된다.

〈감자〉

강수량 부족과 저온이 지속되어 저장된 씨감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농가 내 저장뿐만 아니라 협동농장의 저장고 등 지하에 묻어둔 감자에도 영향을 주었다. 겨우내 저장해 둔 씨감자의 상당량이 손실되었는데, 조사단은 2011년 봄 생산량이 계획량의 60%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겨울밀의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최근 봄감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씨감자는

겨우내 저장해야 하고 파종할 수 있는 씨감자의 양은 감자 생산의 확대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FAO는 주요 감자생산 지역에 월동 창고를 제공해주었다.

〈채소〉

8월과 9월 초 홍수 때문에 배추와 무 모판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다시 심어져야 했다. 이는 2010년 수확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채소 생산량은 공식적으로 2010년에 232만 5천 톤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09년의 414만 톤 보다 44% 감소된 양이며, 2008년의 363만 톤보다는 34% 감소된 양이다. 2009년 연간 채소 생산량이 1인당 170kg으로 추정되었던 반면, 2010년에는 1인당 95kg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2010년 야채 생산량이 소비 요구량의 43% 정도만 충족시키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에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채소 대부분은 식량배급시스템(PDS)에 할당되었다. 농가의 채소 조달은 대개 텃밭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에는 낮은 작황으로 특히 겨울철에 중요한 식재료인 배추와 무 공급이 감소되었다.

2.4. 구제역

2011년 2월 7일 FAO는 북한으로부터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공식보고를 받았다. 2011년 2월 28일과 3월 8일 사이에 FAO의 위기관리센터(Crisis Management Centre-Animal Health, CMC-AH)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구제역의 발생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긴급히 파견했다. 북한의 구제역 발생은 2010년 12월에 처음 인지되었다. 당시 8개 도, 41개 시·군의 총 135개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반응(FMD-positive)이 나왔다.

구제역의 확산은 북한 내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 경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염된 소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구제역은 또한 새끼돼지의 사망률을 높이고(80%) 육류와 낙농 제품의 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부족했다. 구제역을 통제하고 식량 안보에 있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위기관리팀(CMC-AH)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비상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 1) 감염지역의 위치를 찾아내고 정보를 발견해 내는 구제역 감시
- 2) 활동 규제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농장을 보호
- 3)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생물안보조치(bio-security measures)의 개선
- 4) 바이러스 계통(strain)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적합한 샘플링 작업
- 5) 발생지역의 고립과 발생의 억제를 위한 적합한 백신의 전략적인 사용

3. 전반적 경제 상황

북한의 경제는 2003~09년 기간 동안 약 7% 성장했다. 연간 약 0.6%의 인구성장률을 감안한다면 1인당 실질 GDP 성장은 침체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향상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변수이다.

표 2.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2003~09년)

구 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성장률	%	1.8	2.2	3.8	(-1.1)	-2.3	3.7	(-0.9)
실질 GDP 지수	2002=100	102	104	108	107	104	108	107
수출	백만 달러	1,066	1,278	1,338	1,467	1,685	2,045	2,000
수출 증가율	%	-	19.9	4.7	9.6	14.9	21.4	-2.2
수입	백만 달러	2,049	2,279	2,713	2,879	3,083	3,578	3,100
수입 증가율	%	-	11.2	19.0	6.1	7.1	16.1	-13.4
무역적자	백만 달러	983	1,001	1,375	1,412	1,398	1,533	1,10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10 Country Report and earlier issues.

3.1. 상업적 수입 능력

국가의 상업적 수입량은 다음 이유로 감소되어 왔다.

- 1) 식량 및 연료의 높은 국제시장가격
- 2)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었던 남한과의 마찰에 기인한 외화수입의 감소
- 3) 북한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지방의 수입 능력 감퇴

식량과 연료 가격 상승은 국가의 상업적 수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 북한의 상업적 곡물수입 능력을 32만 5천 톤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 목표치를 2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1월 말까지 4만 톤

을 수입했을 따름이다. 이 수정치는 지난 5년 동안의 수입 분석을 기초로 조사단이 추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표 3.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2005~11년, 10월·11월)

양곡연도	평균가격(달러/톤)	수입량(톤)	수입액(달러)
2005/06	207	130,000	26,904,418
2006/07	207	170,000	35,182,700
2007/08	303	203,508	61,581,280
2008/09	355	175,937	62,440,925
2009/10	417	281,963	117,589,640
2010/11*	455	40,357	18,348,110
평 균		192,282	60,739,793

주: 2011년 1월까지의 수입

자료: 북한 정부와 조사단의 추산

지난 5년간 곡물 수입은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콩)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량 중 옥수수는 약 56%, 쌀 33%, 밀가루 6%, 대두와 기타 곡물은 5%를 차지한다. 쌀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옥수수의 수입이 우선적이다.

양자 간 원조, 특히 남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공급부족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2년 동안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은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8년 이전에 남한은 연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지원했다. 양자 간 원조가 2008년에 11만 6천 톤으로 약 70% 줄어들었으며 결국 중단되었다.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 북한에 곡물과 곡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한의 식량 지원 손실분을 채우기에는 불충분하다. 중국은 해마다 연료지원과 농업지원 등과 함께 대두를 2만 톤 이상 제공하고 있다.

2005/06년과 2006/07년에는 국내 생산량이 높았고, 남한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40만 톤 이상 받았기 때문에 곡물 공급이 원활했다. 게다가 국제 곡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005/06년에 13만 톤, 2006/07년에 17만 톤을 수입했다.

2007년에는 대규모 흉수로 국내 곡물 생산이 감소했다. 게다가 남한으로부터의 원조도 2007/08년에 11만 6천 톤으로 감소했다. 북한은 곡물 수입에 6천 2백만 달러라는 거의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높아진 국제 곡물 가격 때문에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3만 톤만 증가했다. WFP를 통한 미국의 원조가 이러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켜 주었다.

표 4. 북한에 대한 양자 간 식량 원조 (2006~10년)

양곡연도	지원국	품목	지원량 (톤)
2005/06	대한민국	쌀	403,500
	인도	쌀	2,000
	중국	대두	33,695
총량			439,195
2006/07	대한민국	쌀	400,000
	중국	대두	23,610
총량			423,610
2007/08	대한민국	쌀	115,650
	중국	대두	17,450
총량			133,100
2008/09	미얀마	쌀	8,500
	캐나다	대두	200
	중국	대두	22,336
총량			31,036
2009/10	중국	쌀	690
	미얀마	쌀	1,500
	베트남	쌀	3,000
	캐나다	대두	260
	중국	대두	21,082
	중국	밀가루	100
	러시아	밀가루	9,982

2008/09년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2005/06년 생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과 남한의 식량지원도 중단되었다. 양자 간 식량 원조의 전반적 수준은 약 3만 1천 톤으로 감소했다. 높은 식량가격과 연료가격으로 인해 북한의 상업적 수입 능력도 감퇴되었다. 약 6천 2백만 달러의 비용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2만 8천 톤 적은 수치인 17만 6천 톤의 곡물만 수입될 수 있었다.

2009/10년 들어서도 남한과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재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은 28만 2천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예년의 2배에 달하는 1억 1,700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했다. 다행히 국제 연료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북한은 곡물 수입요구량 증가에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다.

3.2. 북한의 연료 소비와 가격

최근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상업적 수입량은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5년간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하루 1만 6천 배럴이었다. 2008년 석유 제품의 수입액은 5억 달

러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최근의 가격 수준이 유지된다면 북한의 2011년 수입액은 2008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간 정치·경제적 긴장관계는 북한의 무역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표 5. 북한의 평균 석유 소비 및 지출경비 (2005~2011)

연도	중국 대경 원유가격 (FOB가격, 달러)	1일 원유소비량 (1,000 배럴)	원유수입액 (달러)	증감 (전년 대비)
2005	53	19	357,767,732	
2006	63	14	329,405,454	(-8%)
2007	71	17	433,778,612	32%
2008	97	16	580,407,165	34%
2009	59	16	345,516,862	(-40%)
2010	78	16	457,608,075	32%
2011	99	16	578,620,711	26%

3.3. 무역 수지

북한의 수출 규모는 연간 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남한(47%)과 중국(40%)이다. 수출 품목은 광산물, 금속 제품, 제조품, 섬유 및 농수산물 등이다. 남한과의 긴장 관계는 수출 감소를 유발하여 북한의 외화벌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수입액은 지난 2년 동안 30억 달러 이상이었다. 주요 수입상대국 역시 중국(61%)과 남한(24%)이다. 수입 품목은 석유, 코크스용 석탄, 기계 및 장비, 섬유, 음식품, 곡물 등이다.

북한은 2003년 9억 8,300만 달러에서부터 2008년 15억 3천만 달러로,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높은 연료 가격이다. 연료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2011년 수입액은 상승할 것이며 수출액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곡물 수입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2010/11년의 식량의 수급과 부족량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식량수급 수정전망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식량수급 전망치는 다음의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작성되었다.

- 씨감자 손실과 생산량 감소 - 씨감자가 많이 손실되어 이용 가능한 씨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조사단과 농학자에 따르면 감자 생산량은 예년 평균의 60% 정도로 예상된다.
- 겨울밀/보리의 생산량 감소 - 조사단에 의하면 불충분한 강우량과 추운 겨울의 지속에 따라 겨울밀은 평균 50% 정도가 동사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르면 겨울밀/보리의 수확량은 2010년 조사에 의해 추정된 수량보다 25%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수확 후 손실 - 쌀과 옥수수의 15%, 밀/보리, 기타 곡물, 두류의 10%, 감자의 4% 정도가 손실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감자의 수확 후 손실은 봄 생산량의 감소 때문에 CFSAM 2010에 의해 측정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수확 후 손실은 3%에서 30%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논란을 잠재울 조사연구는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 인구 - CFSAM 2010에서와 같이 조사단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기간의 연앙인구를 2천 442만 7천 명으로 추정했다.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008년 10월에 2천 405만 2천 명이였다. 중앙통계국은 연간 인구성장률을 0.6%로 추정했다.
- 1인당 식량 소비량 - CFSAM 2010에서와 같이 한 해 1인당 기본식량(basic food) 소비량 174kg 중 168kg은 곡물(감자, 쌀 포함)로, 6kg은 두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비 수준은 평균적으로 1인당 하루 1,640kcal에 상응하는 양이다. 주민들은 이외에 생선, 가금육, 육류, 고구마, 채소, 과일, 산채 등을 일부 소비한다.
- 종자 소요량 - CFSAM 2010에서와 같이 종자 소요량은 21만 9천 톤이다. 이는 평년 북한에서의 파종율과 2010/11년에 계획된 재배면적에 기초하고 있다.
 - 쌀 : 97.5kg/ha, 570,000ha.
 - 옥수수 : 45kg/ha, 503,000ha.
 - 밀, 보리, 기타 곡물 : 200kg/ha, 103,000ha.
 - 감자 : 625kg/ha, 181,000ha.
- 사료 소요량 - CFSAM 2010에서와 같이 15만 톤으로 추정한다. 2008년도에는 18만 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차이는 초식가축을 선호함에 따라 농후사료를 먹는 가축의 전체 수가 감소했다는 지방정부의 보고 내용과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도정률(벼) - CFSAM 2010에서와 같이 65%이다. 이 수치는 표준도정률을 사용한 이전 CFSAM 보고서와 같다. 마지막 추수 단계 기간인 작년 9월의 홍수로 미숙 상태의 알곡이 많았기 때문에 농업관리기관은 표준도정률보다 낮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미 벼 수량에 미숙 상태를 반영했으므로 표준도정률을 그대로 사용했다.⁵⁾
- 옥수수 생산량 - CFSAM 2010에서와 같이 168만 3천 톤으로 추정되었다. 농업관리기관은 옥수수의 품질이 8월의 흐린 날씨와 9월의 홍수에 영향을 받았고, 옥수수의 수분 함량은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 대두 생산량 - CFSAM 2010에서와 같이 15만 4천 톤으로 추정되었다. 대두는 북한에서 중요한 단백질 원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2010년 보고서에서 식량 수급 지표에 포함되었다. 대두의 열량이 곡물의 열량보다 약 20% 더 높지만 조사단은 대두의 생산량을 식량곡물 상당량으로 변환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두 생산량이 북한 식량 곡물 총생산량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성 통계에서도 곡물 총생산량에 대두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곡물의 상업적 수입 - 2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조사단에 공식적으로 인도한 자료에 기초한다. 이 양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상태에서 전년의 곡물 수입량과 일치한다. 쌀과 옥수수의 정확한 수입 규모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식량 수급표에서 식량의 소비량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 기말 재고 - 국가 전체의 식량 소요량에서 2주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재고량으로 계상했다. 이 양은 군(county)에 의해 보고된 식량배급시스템의 재고량과 군 지역 창고에서 관찰된 곡물의 양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는 전략적 재고에 대해서는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2010/11년 곡물수입 필요량은 108만 6천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CFSAM 2010 수치보다 21만 9천 톤 높다. 그 차이는 2010년 10월 초에 수행된 CFSAM 조사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상되는 상업적 수입량을 계상할 때, 식량 부족분은 전체 식량 소요량의 21%에 해당하는 88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2010년의 수치보다 34만 4천 톤 증가한 것이다.

5) (역자 주)우리나라의 경우, 현미의 도정률은 80%, 백미의 도정률은 72%로 각각 계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보고서에서 계상하고 있는 벼의 표준도정률 65%는 매우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수정된 북한의 식량수급량 (2010/11년)

	쌀(도정) ¹⁾	옥수수	밀, 보리	기타 곡물	감자 ²⁾	콩	계 ³⁾
국내생산	1,577	1,683	180	19	414	154	4,252
수확기 생산	1,577	1,683		19	158	154	3,591
겨울/봄 생산			180		256		436
소채전							225
소요량	1,858	2,680	180	19	414	186	5,338
식용	1,466	2,253	141	15	230	147	4,250
사료용	0	75	0	0	55	20	150
종자용	56	23	21	2.5	113	4.5	219
수확 후 손실	237	253	24	2	24	15	541
비축	100	77	0	0	0	0	177
수입량	281	997	12	0	0	32	1,086
상업적수입(예정)	66	110	12			12	200
순부족분							886
기지원분							44

역자 주 1) 도정률 65%

2) including potatoes in cereal equivalent at 25% conversion rate.

3) 개인경작 생산량(75천 톤), 경사지 생산량(150천 톤) 포함.

부족분 88만 6천 톤은 국가 전체 식량배급시스템의 배급 소요량 3.68개월분에 해당되는 양이다. 만약 부족분이 상업적 수입이나 지원에 의해 충당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1인당 식량소비량은 174kg에서 138kg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4.1. 남는 지역으로부터 부족 지역으로의 식량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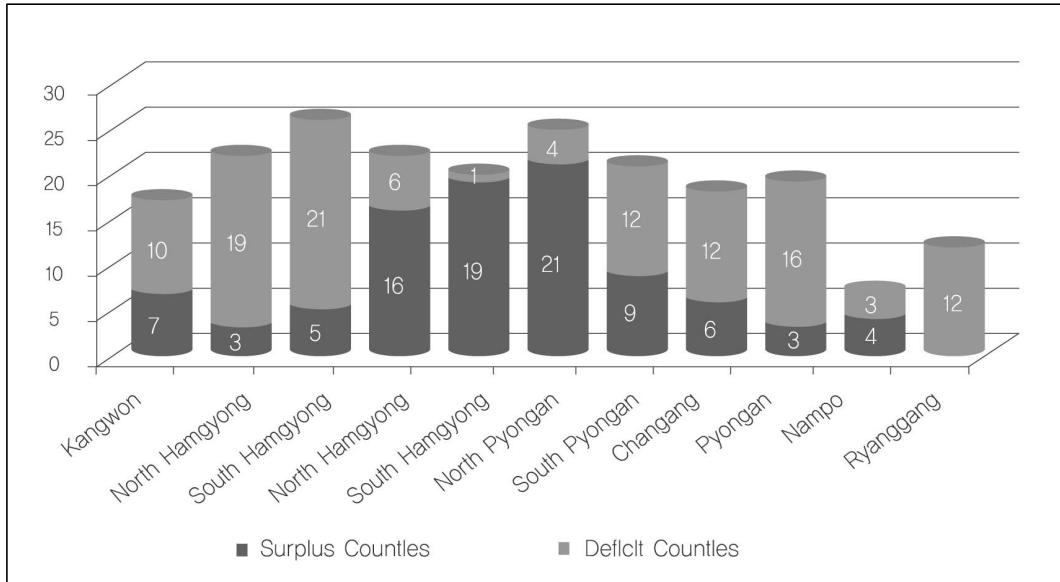
식량 행정부처의 기능은 모든 지역에서 식량수급이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남는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식량을 수송하기 위해 연료와 수송수단이 필요하다. 군지역 간 식량 이전은 군으로부터 생산량 보고를 받은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정부는 (남는)특정 도/군이 (부족한)특정 도/군에 곡물을 제공하도록 결정한다.

도 내부에서의 식량 이전을 위해, 군에서는 도인민위원회(PPC)에 의해 할당된 곡물을 수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송 장애 때문에 도 내부 혹은 다른 도 사이에 식량 수송이 자주 지연되어 식량배급이 어려워지곤 한다. 조사단은 또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도인민위원회가 곡물을 수입할 수도 있음을 알아냈다.

식량 부족 군은 주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부족한 곳은 인구가 많

은 도시지역이다. 그러나 남는 지역으로부터 부족 지역으로의 식량 재분배로 인해 남는 군도 결국 식량이 부족해진다.

그림 2. 식량배급 시스템의 초과 및 부족 지역



5. 주민의 식량 안보와 취약성 분석

이 부분은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정부기관, 국제기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최근의 식량안보 평가에 의한 2차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단은 협동농장, 식량 배급소, 창고, 유치원, 고아원, 학교, 병원을 방문했으며, 도시(읍, 동) 지역과 농촌(리) 지역 가호를 선택적으로 조사했다.

5.1.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

북한은 중앙이 통제하는 식량분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400만 전체 인구에 대한 식량 배분은 국가인민위원회(NPC)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소비 그룹은 협동농장의 농가(30%)와 식량배급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70%)로 구성된다.

〈협동농장 농장원〉

협동농장의 농장원은 1인 기준 219kg/년 또는 600g/일을 배분받는다. 농장원의 할당량은 나이에 따라 분배되거나 근무시간/날짜 등을 포함하는 근무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농장원은 20~30평 범위에서 텃밭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군인, 사회안전원(의무)〉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 부문의 주요 산업집단에 속해 있는 인구는 약 72만 4천 명(남성 43만 9,586명, 여성 28만 4,592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700g의 곡물을 받는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이 배급량과 2008년 인구센서스 수치에 기초하여 조사단은 2010/11년 18만 5천 톤의 식량이 군대를 포함한 이 집단에 할당되었다고 추정했다.

〈광산 및 채석 노동자〉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 부문의 주요 산업집단에 속해있는 인구는 약 71만 8천 명(남성 45만 8,484명, 여성 25만 9,711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집단의 사람들이 하루에 700g의 곡물을 받는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이 배급량과 2008년 인구센서스 수치에 기초하여 조사단은 2010/11년 18만 3,500톤의 식량이 이 집단에 할당되었다고 추정했다.

〈건설 노동자〉

2008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 부문의 주요 산업집단에 속해있는 인구는 약 36만 8천 명(남성 28만 5,941명, 여성 8만 1,709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700g의 곡물을 받는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이 배급량과 2008년 인구센서스 수치에 기초하여 조사단은 2010/11년 9만 4천 톤의 식량이 이 집단에 할당되었다고 추정했다.

〈식량배급시스템, 배급, 비축, 식량 소요량〉

이들에 대한 배분 이후, 나머지는 식량배급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과 가구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이 그룹의 노동자와 은퇴자는 현금을 받고 이것으로 공공식량배급소의 곡물을 급수에 따라 보조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각 협동농장에서도 관리직·기술직 직원 등 농장의 비농업직원들을 위한 공공식량배급소를 운영한다.

식량배급 시스템을 통해 배분될 식량은 수확철인 9, 10월에 신중하게 계획되며, 당해 연도의 곡물 조달 수준(농업 생산량과 곡물 수입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배급대상자에 대한 곡물 배급량이 1인 하루 평균 573g이고, 이를 합치면 1년에 약 209kg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곡물 수급량과 기타 다른 요인들에 따라 매달 다르게 조정된다. 2010/11년 배급 규모는 1인 하루 평균 386g으로 계획되어, 2008/09년에 334g, 2009/10년에 376g보다 상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식량배급 시스템의 배급 수준 (연령별, g/1인/1일)

나이	정상배급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세 미만	100	67	65	63	62	61	60
1-4	200	135	130	127	126	125	120
5-9	300	200	195	192	190	125	180
7-10	400	270	265	256	253	250	240
11-16	500	340	330	320	315	310	300
17-59	700	475	460	450	440	435	425
60세 이상	600	400	395	385	380	375	365
평균	573	400	390	380	375	370	360

자료: 북한 정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배급량은 2009/10년 수준보다 높아져, 2010년 12월 이후 평균 배급 규모는 1인 하루 평균 400g이 되었다. 2010/11년의 배급 규모 증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1) 60여년 만에 가장 추웠던 기간 동안 식량소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
- 2)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 조달의 급격한 감소
- 3) 2009/10년에 비교하여 작황이 3% 좋아졌다는 판단

원칙적으로, 북한 모든 지역에서는 같은 배급량을 분배받는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는 주요 식량의 종류는 그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 곡물이 무엇이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배급 식량은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감자로 구성된다. 쌀은 가장 선호되지만 모든 가구에 동등한 양이 배분되지는 않는다. 쌀 생산 지역은 옥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보다 쌀 배급 비율이 더 높다. 배급량 중 10~50%는 쌀, 나머지는 옥수수로 제공되고 있다.

식량의 조달은 배급과 함께 채집식량 및 어류의 양과 텃밭의 생산에 달려있다.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 원천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다. 산과 해안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민은 채집식량, 수산물, 해초류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 도시거주자들 상당수는 텃밭이 없다.

최근 식량배급 시스템의 계획은 1인 하루 평균 배급량을 4월에는 400g으로 유지하고, 5월과 6월에는 390g, 7월에는 380g, 8월에는 375g, 9월에는 370g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다. 5개월 동안 배급대상자들은 옥수수와 쌀을 1인 하루 평균 381g을

받는다. 이 양은 1,314kcal에 해당하며, 북한의 일일 최소에너지 소요량인 2,450kcal의 54%에 해당한다.

조기 수확에 따른 배급량의 조절을 감안하더라도 식량배급 시스템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식량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곡물을 83만 8천 톤을 필요로 한다. 월별로 보면 대략 5월에는 19만 6천 톤, 6월에는 19만 톤, 7월에는 19만 1천 톤, 8월에는 18만 9천 톤, 9월에는 18만 6천 톤이 필요하다. 겨울밀, 봄보리, 봄감자가 수확됨에 따라 2011년 7월 초 식량배급 시스템에 10만 톤 정도 새로 산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배급 시스템 재고는 춘궁기에 해당되는 5월부터 7월 사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1,6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필요량의 대부분을 식량배급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미 도 인민위원회에서는 배급량이 줄어들에 따라 식량재고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민들에 알렸지만, 주민들은 실제로 이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없다.

식량배급 시스템의 식량소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업적 수입, 국제적 식량 원조, 감자와 밀, 보리의 조기수확이 필요하다. 정부에 의해 계획된 16만 톤의 상업적 수입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67만 8천 톤의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식량원조가 지금부터 9월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8. 2010/11년도 식량배급 시스템 계획배급량, 소비량, 재고량

시기	2010/11년 계획		
	배급량 (g/일)	총 소비량 (톤/월)	재고량 (톤)
10월	360	181,001	1,179,252
11월	370	186,029	993,224
12월	400	201,112	792,111
1월	400	201,112	590,999
2월	400	181,650	409,350
3월	400	201,112	208,238
4월	400	194,625	13,613
5월	390	196,084	(-182,471)
6월	390	189,759	(-372,230)
7월	380	191,056	(-563,286)
8월	375	188,543	(-751,829)
9월	370	188,029	(-937,858)

자료: 북한 정부

5.2. 시장

조사단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모든 팀은 시장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북한에는 사람들이 식량 및 비 식량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의 종류가 세 가지(국영상점, 농민시장, 도시시장) 있었다.

〈국영상점〉

국영상점은 매일 열리며 간장, 된장, 식용유와 같은 필수품들을 배급가격에 제공한다. 주민들은 상업성이 세운 월별 할당량에 해당하는 식품을 국영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필수 식품은 간장(50g/사람/일)과 된장(30g/사람/일), 식용유(20g/사람/일)을 포함한다.

각 가구가 할당된 식품 전부를 구매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공급상황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많은 가구에서 2월 초 이후 식용유를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새해 혹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육류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반에서는 새로운 물품이 도착하는 때와 가구당 배분량(entitlement)에 대해 알려준다. 각 가구가 돈을 내면 국영상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환권이 발행된다.

식량과 상품의 양과 종류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에 따라 산채, 과자, 소금과 같은 판매를 위한 식료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농촌 지역의 국영상점은 대도시 중앙에 있는 상점보다 상품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학용품, 옷, 신발, 담요, 주방용품, 도자기, 담배, 맥주, 청주, 장난감, 라디오 등 식량 이외의 물품을 국영상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농민시장〉

농민시장은 10일마다 열리거나 한 달에 3번 열린다. 시장에서 폭 2미터의 좌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루 1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판매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식량 또는 상품을 가져온다. 곡물의 판매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조사단은 곡물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농민시장에서 관찰된 주요 식량은 채소, 감자, 과일, 계란, 육류, 수산물, 두류, 양념 등이었고, 다른 상품으로는 농기구, 바구니, 학용품, 옷, 양말·장갑 등이 있었다.

물물교환 또는 협동농장의 친척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얻은 곡물은 식량배급 대상 가구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교환된다. 가구의 소비를 위해 할당된 물량 이상의 초과 곡물은 양정국(State Food Procurement Agency)에 수매해야 한다.

몇몇 판매자들이 책정한 물물교환의 조건을 보면, 옥수수 2kg, 수산물 1kg, 돼지고기 1/2kg, 계란 5개는 각각 쌀 1kg과 교환되었다. 판매자들은 식량배급 시스템을 통해 지불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북한 화폐로 쌀과 옥수수를 거래하기를 주저했다.

판매자들은 농민시장이 한 달에 3번 밖에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조금씩만 가져왔다. 판매자 수가 구매자 수보다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조사단 효과 때문일 것이다. 북한사람들, 특히 평양 외부 사람들은 외국인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을 경계한다. 평양의 통일시장과 농촌시장의 가격 차이는 컸다. 농촌시장에서 20원 하는 시금치 한 단 가격이 통일시장에서는 50배인 1,000원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도시민, 특히 외국인이나 북한 엘리트에는 중요하지 않다.

〈도시시장〉

도시시장은 매일 열리지만 농민시장과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조사단은 시장에서 어떤 곡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되는 식품은 감자, 채소, 콩, 산채, 해산물, 생선, 그리고 계란, 토끼, 오리, 닭을 포함한 육류였다. 다른 제품은 농기구, 바구니, 빗자루, 학용품, 옷, 기타 가정 제품 등이었다. 판매되는 상품의 양은 적었고, 농민시장에서처럼 시장가격은 경쟁적이었다.

〈환율〉

최근 공식환율은 대략 1(달러):100(원)이지만, 시장환율은 1:3,000에 가깝다. 즉, 2009년 11월에 있었던 화폐개혁이 모든 공식환율을 무력화시켰다. 화폐교환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의 자산을 상실했다.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고 사적 시장의 성장을 저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노동자의 연봉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물가는 상당히 하락했다.

식량배급시스템의 가격은 화폐개혁 이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예를 들면, 식량배급시스템의 쌀 가격은 kg 당 44원에서 24원으로 하향 책정되었고, 옥수수가격은 24원에서 14원으로 하향 책정되었다. 배급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 즉, 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화폐 부족 보다는 시장에서의 상품 부족 현상은 그대로였다.

노동자는 한 달 평균 3,000~4,000원 정도 번다. 이것은 1달러에 해당하는데, 이것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보조금 때문이다. 또 일반 도시민들은 수입된 상품들을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만약 4월 말에 식량배급 시스템의 곡물이 다 떨어졌다면, 사람들은 1kg에 2,000원인 쌀과, 1,000원인 옥수수를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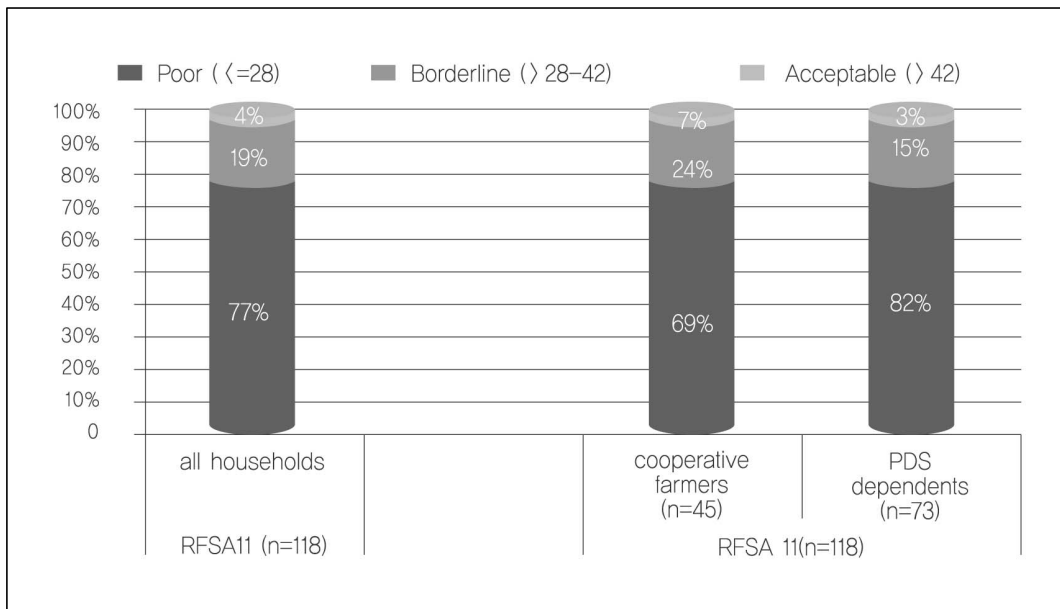
비공식 경제의 중추인 물물교환 시스템이 2주 이상 이러한 규모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결과일 것이다.

5.3. 주민의 식량 소비

조사단은 농촌(리)과 도시(읍, 동) 지역의 122가구를 인터뷰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인터뷰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들은 북한 내 가구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터뷰한 가정의 상당수는 다양성이 부족한 식단, 즉 탄수화물에 기초한 식단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단백질, 지방, 기타 영양소가 부족하다. 각 가정에서는 지난 7일 간 소비한 모든 식단 리스트를 작성했다. 매일 소비된 식량 종류에 따라 점수(곡물=2, 감자=2, 콩류=3, 채소=1, 과일=1, 육류 또는 생선=4, 기름과 설탕=0.5)를 매기도록 했다. 인터뷰한 가정 중 4%에서만 충분한 식사 기록(42점 초과)을 나타냈다. 77%의 가정에서는 28점 혹은 그 이하 기록을 나타내어 열악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19% 가정에서는 28~42점 기록을 나타냈다. 배급대상자들은 협동농장 농가보다 더 열악한 식사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3. 식량 소비 패턴



인터뷰 한 모든 가정에서는 평가 전 주에 매일 곡물 또는 두류, 채소(산채 포함)를 섭취했다고 보고했다. 열악한 식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한 주에 이틀 정도만 식용유를 섭취할 수 있었다. 그 경계에 있는 가정들에서는 한 주에 식용유는 3일, 콩류는 3일, 동물성 단백질 식품(계란, 육류, 생선)은 2일, 설탕과 당류는 2일 동안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식사를 하는 극소수의 가정에서는 한 주에 3일 이상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했고, 몇몇 유제품은 1일, 설탕과 당류는 2일, 기름은 5일 동안(거의 매일) 소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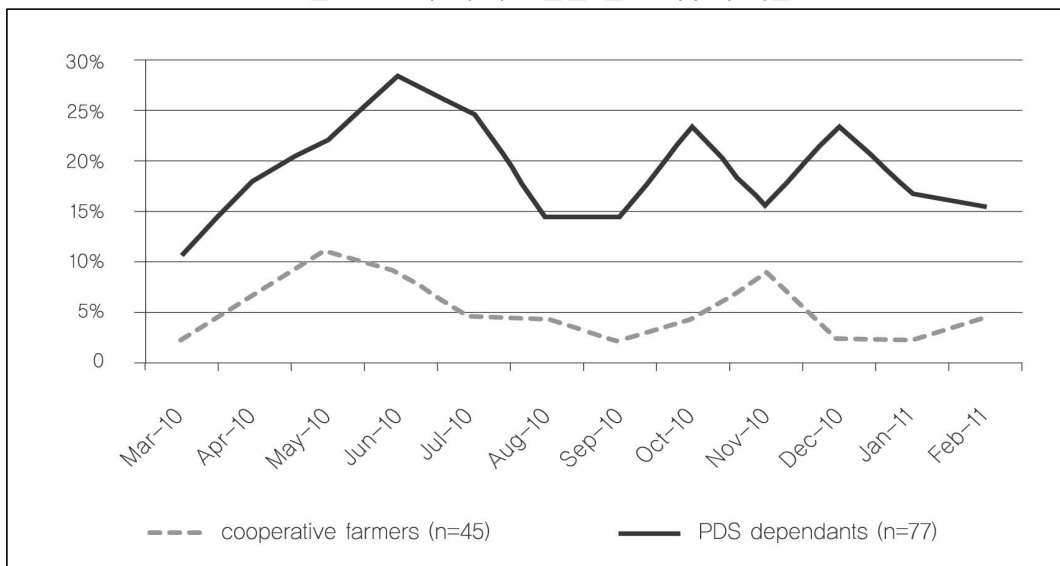
5.4. 식량 안보에 대한 대응

식사량 축소 - 인터뷰한 가정의 약 2/3는 인터뷰 이전 주에 적어도 한 번은 식사량을 줄였다고 보고했다. 약 1/4의 가정에서는 식사량을 매일 줄였다고 보고했다. 약 40%의 가정들은 매일 양을 불리기 위해 물을 더 첨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75%는 이러한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것으로 보고했다.

식사횟수 축소 - 인터뷰한 가정의 절반가량은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뷰 이전 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식사를 걸렀다고 보고했다.

농촌의 친지들에 의존 -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가정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는 농촌의 친지이다. 그들은 곡물할당량에 추가하여 텃밭 생산물이나 가축

그림 4.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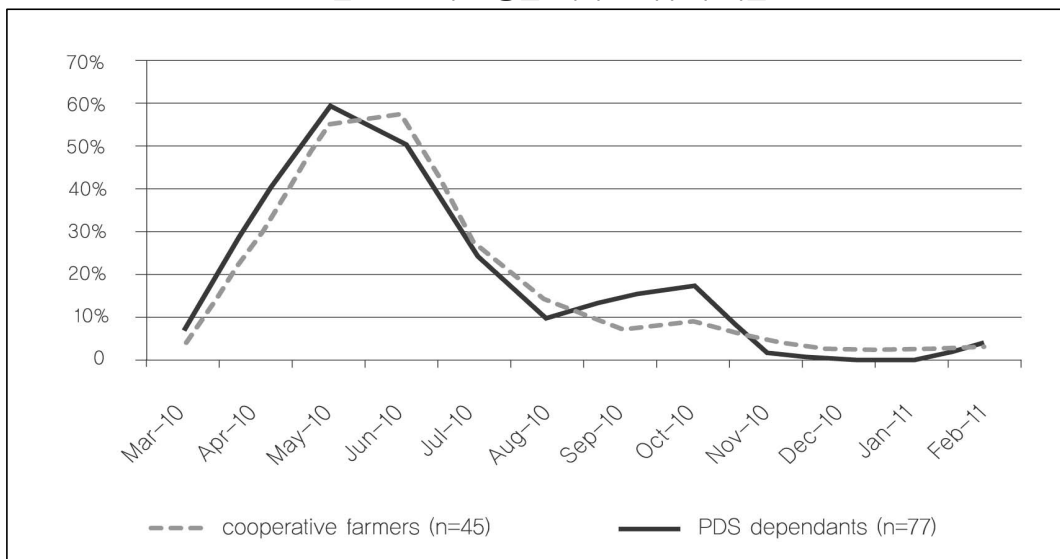


도 있기 때문이다. 약 60%의 도시 가구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도움은 일반적으로 조기 수확철과 주된 추수철인 5~7월과 10~12월경에 제공되었다. 농장원들은 이 시기에 그들의 친척을 돕는 데 힘들어 했다. 평가 전 주에 20%의 가구만 친척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식량을 소비했다고 보고했다.

산야초 등 - 산야초 등(산채, 도토리, 솔방울, 산딸기, 버섯, 도라지, 해조류 등)은 한국 사람들의 식단에서 일상적이다. 조사하는 동안 이러한 일상적 관행과 다른 식량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례적인 산채채취 및 소비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뷰한 가정의 대다수(62%)는 비정상적 양의 산야초를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채취 시기는 봄과 가을이었고, 야생 과일은 가을에, 산채는 봄에 주로 채취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채취되는 4~6월이 산야초 등을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다.

몇몇 군에서는 국영상점을 통해 식량배급 대상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원하여 산채를 채취했다. 조사단은 산채가 국영상점에 있는 것을 관찰했다. 다른 군 당국자들에 의하면 식량 배급을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산채를 채취하도록 장려하긴 했으나, 군 차원에서 조직된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몇몇 공장, 기관, 협동농장에서는 산채 채취를 위해 작업자들을 동원하거나 휴가를 인정해주기도 했다.

그림 5. 산야초 등을 채취한 가구의 비율



해조류 채취는 해안가에 있는 군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수확의 절정기는 6~8월이다. 그러나 조사단이 방문한 군에서는 이른 수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해조류의 조기 채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채취된 해조류는 국영상점을 통해 배분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산야초 등의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산야초가 약초로 쓰기 위해 주로 채취 되었던 예전에 비해, 반찬 혹은 곡물과 혼합된 형태로 대안적 식량으로 소비되는 것은 점점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6. 영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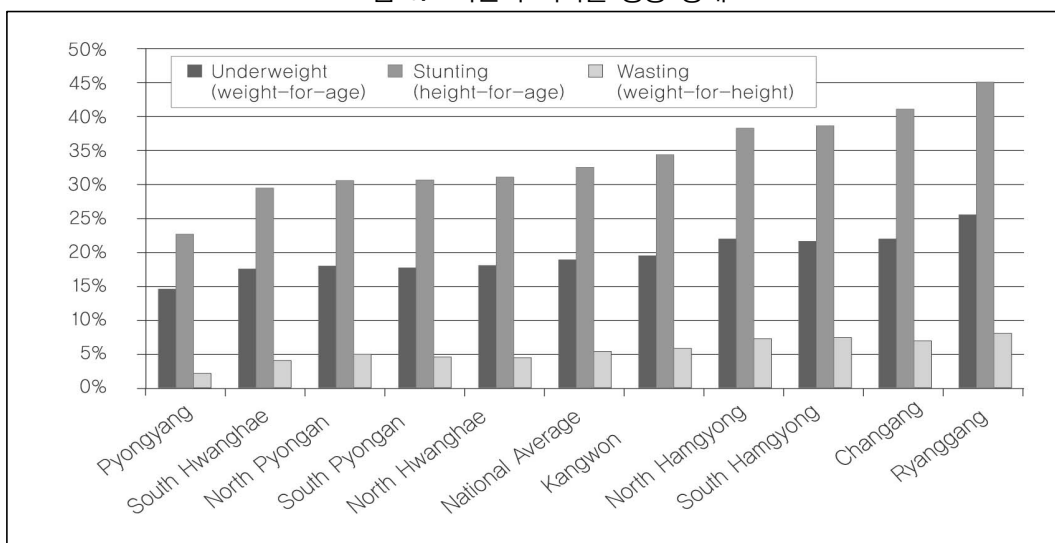
〈만성적 영양 부족〉

아시아의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에서처럼 북한에도 만성적 영양 부족이 존재한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의 영양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가임기 여성들의 빈혈은 매우 널리 퍼져있다. 아이들의 저성장과 저체중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만성적 영양실조를 의미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불충분한 영양, 제한된 열량 섭취, 다양하지 못한 식단, 반복되는 혹은 만성적인 질병들의 결과이다.

북한 정부는 UNICEF, WFP와의 공동 작업으로 1998년에 영양 실태를 조사했다. 여성과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다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가 UNICEF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중앙통계사무국(CBS)에 의해 2009년 10월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32%의 영양실조, 18%의 저체중, 5%의 소모성 질환으로 나타났다.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 영양부족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고 우려할 만하다. 가임 기간(15~49세) 여성들의 약 1/4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미발달에 대한 지역적 격차는 크게는 22%에서 45%까지 존재한다. 미발달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양강도(45%), 자강도(41%), 함경남도(39%), 함경북도(38%), 강원도(34%)와 같은 북동부 지방이다.

그림 6. 북한의 지역별 영양 상태



〈최근 상황〉

조사기간 동안 평가한 영양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방문조사를 하는 동안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유치원 및 유아가 있는 가정의 관리자, 병원의 건강관리인, 소아과·산부인과 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종류의 기관에서 유아의 영양 상태에 대한 시각적 검사를 수행했다.

조사단은 조사평가 두 번째 주에 보육원에 출석한 5세 이하의 유아 272명에 대한 팔둘레(mid-upper arm circumference, MUAC) 측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아이들의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보통 보육원과 어린이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연령비 체중(weight-for-age)을 측정한다. 팔둘레 측정을 통해 아이들의 영양실조에 대한 상태를 검증하였다.

어린이집(baby home)은 고아들과 취약계층의 장애아를 수용한다. 봄비는 환경과 비위생, 부적합한 물 공급 때문에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피부질환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부병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요청했다.

병원을 방문하는 동안 보건 당국자들은 저체중 아이의 출산(LNW)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산부의 면역성 저하와 영양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건 당국자들은 또한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여성의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WFP의 영양강화식품, UNICEF의 복합영양제, 미량영양분말(MNP)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인민위원회나 공공보건 당국 모두로부터 질병 발생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냉혹한 겨울 추위 때문에 급성호흡기질환(ARI), 설사,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 섬유질의 산야초 소비 증가 등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잠재적인 시나리오〉

춘궁기(5월~7월), 식량배급량의 감소 가능성, 기타 건강 문제들로 인해 영양실조 및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 5세 이하 유아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가정에서 영양(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된 탄수화물 위주의 부족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위태로운 영양 상태와 식량 공급 상황에서 극심한 영양실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산부의 저체중 아이 출산율은 증가하고, 영양실조에 취약한 아이들은 더 극심한 영양실조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생존 혹은 완전한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예방적이고 치유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 1)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다양한 미량영양소(micronutrients)의 제공
- 2) 추가적 식량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의 6~24개월 아기들에 대한 미량영양소분말 혹은 지방 보충
- 3) 치료용 목적의 식량 비축
- 4) 저농도 오스모몰(osmolality) 경구용 수액제(Oral Rehydration Solution, ORS)
- 5) 설사 치료제로서 정제된 아연 약제.

적절한 모유 수유와 추가적 식량지원, 안전한 물과 비누로 손 씻기, 위생 시설 등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필수적이다.

7. 현재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2010년 7월 이래로 WFP는 여성과 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을 강조하는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PRRO)을 수행해왔다. WFP는 수입한 식량으로 옥수수-우유 혼합식(CMB), 옥수수-콩 우유 혼합식(CSM), 쌀-우유 혼합식(RMB), 그리고

강화된 옥수수과 밀가루로 만든 비스킷 등의 영양식품을 가공하는 11개 공장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강화 식품은 임산부와 수유부, 산부인과의 어린이와 보호자, 고아원(어린이집, 어린이 보호소, 기숙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 시설(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배분된다.

WFP는 현재, 7개 도(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65개 군 지역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

- 함경북도: 길주군, 명간군, 오랑군, 경성군, 부령군, 명천군 / 김책시 / 포항구역, 수남구역, 라남구역, 청암구역
- 함경남도: 함주군, 용광군, 부전군, 정평군, 금야군, 홍원군, 북청군, 덕청군, 리원군 / 송정강구역, 동홍산구역, 회상구역, 사포구역, 해안구역, 홍남구역 / 신포시, 단천시
- 강 원 도: 전내군, 안변군, 고산군, 통천군 / 문천, 원산시
- 평안북도: 피현군, 염주군, 동림군, 운전군, 구장군, 향산군 / 신의주시
- 평안남도: 북창군 / 평성시, 개천시
- 황해북도: 봉산군, 서흥군, 수안군, 연산군, 신평군, 신계군, 금천군, 토산군, 장평군 / 송림시, 개성시
- 황해남도: 장연군, 삼천군, 은률군, 신천군, 재령군, 신원군,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 해주시

WFP는 2010년에 PRRO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20% 정도만 기부 받았다. 이러한 자금 제약으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에서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량을 지원 받는 사람들도 매달 배분 일자가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 북한에 분배된 식량의 총량은 곡물 4만 4천여 톤인데, 필요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WFP는 식량 및 영양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위한 식량지원(Food for community development, FFCD)’ 활동을 통해 준공기 동안 취약계층에 임시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활동은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

UNICEF는 자금 모금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30% 정도만 제공받고 있다. 영양, 건강, 물, 보건 활동을 위한 자금의 부족은 영양실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8. 식량 지원의 주요 대상

〈식량부족과 영양실조에 취약한 지역(도)〉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 북동부 지역은 식량부족에 처한 군이 많다. ‘MICS 2009’ 결과보고서에는 저체중 아이들이 WHO가 지정한 한계치인 20%, 혹은 그 이상으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량 불안정에 대한 두 가지 측정결과에 기초해 보면, 위의 5개 도는 식량과 영양 공급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에서는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군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위의 5개 시·도는 각각 20% 이하의 저체중아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양시는 영양실조 정도가 가장 낮으며, 식량 초과 군으로부터 식량 이전의 주요 수혜자라는 점에서 식량 공급 상황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표 9. 지역별 취약계층 인구

단위: 명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5세미만)	유치원생 (5-6세)	초등학생 (7-10세)	중학생 (11-16세)	노인 (60세이상)	총계
모든 군 포함							
양강도	31,000	52,000	23,000	49,000	79,000	100,000	334,000
함경북도	103,000	170,000	69,000	151,000	237,000	315,000	1,045,000
함경남도	135,000	227,000	92,000	199,000	311,000	426,000	1,390,000
강원도	66,000	109,000	42,000	95,000	166,000	187,000	665,000
자강도	56,000	95,000	40,000	83,000	130,000	191,000	595,000
우선순위계	391,000	653,000	266,000	577,000	923,000	1,219,000	4,029,000
취약군 지역만 포함							
평안남도	33,000	54,000	21,000	46,000	73,000	98,000	325,000
평안북도	49,000	81,000	34,000	69,000	118,000	159,000	510,000
황해남도	55,000	92,000	40,000	88,000	145,000	193,000	613,000
황해북도	53,000	85,000	34,000	76,000	123,000	152,000	523,000
차선순위계	190,000	312,000	129,000	279,000	459,000	602,000	1,971,000
고아원							12,000
결핵환자							52,000
장애자							22,000
소아병원							14,000
기타 계							100,000
총계	581,000	965,000	395,000	856,000	1,382,000	1,821,000	6,100,000

〈취약계층〉

가구 구성원 중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독거노인,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장기요양환자, 장애인은 식량 부족에 더 취약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추가적인 식량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610만 명의 취약계층 인구 중, 식량수급이 가장 불안정한 북동부 지역(402만 9천 명)은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양실조 비율이 낮으며 식량 부족을 겪는 군이 비교적 적은 남·서쪽의 4개 도에 사는 취약계층 인구는 197만 1천 명이다.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은 대략 10만 명이다. 이들은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 1만 2천 명, 결핵환자 5만 2천 명, 장애인 2만 2천 명, 소아과 병동에 있는 환자 1만 4천 명이다.

9. 권고

9.1. 식량지원의 필요요건 및 대응사항

〈곡물〉

조사단은 5개월간 610만 명의 취약계층에 총 29만 7천 톤의 곡물을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고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5개 도(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402만 9천 명의 주민에 19만 6천여 톤의 곡물을 제공
- 식량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4개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식량부족 지역(군)에 거주하는 197만 1천 명의 취약계층에 9만 6천여 톤의 곡물을 제공
- 기타 10만 명의 취약계층에 6천여 톤의 곡물을 제공

임산부와 수유부, 노인에 대한 1인 하루평균 곡물 배급량은 북한이 규정한 일일 최소 식량소요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400g, 5~16세의 어린이에게는 최소 300g, 5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최소 200g을 권장한다.

표 10. 5개월간 지역별 곡물 요구량

단위: 톤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5세미만)	유치원생 (5-6세)	초등학생 (7-10세)	중학생 (11-16세)	노인 (60세이상)	취약계층 총계
배급량 (g/1인/1일)	400	200	300	300	300	400	
우선지원 (전지역)							
량강도	1,860	1,560	1,035	2,205	3,555	6,000	16,215
함경북도	6,180	5,100	3,105	6,795	10,665	18,900	50,745
함경남도	8,100	6,810	4,140	8,955	13,995	25,560	67,560
강원도	3,960	3,270	1,890	4,275	7,470	11,220	32,085
자강도	3,360	2,850	1,800	3,735	5,850	11,460	29,055
우선순위계	23,460	19,590	11,970	25,965	41,535	73,140	195,660
차선지원							
평안남도	1,980	1,620	945	2,070	3,285	5,880	15,780
평안북도	2,940	2,430	1,530	3,105	5,310	9,540	24,855
황해남도	3,300	2,760	1,800	3,960	6,525	11,580	29,925
황해북도	3,180	2,550	1,530	3,420	5,535	9,120	25,335
차선순위계	11,400	5,805	9,360	12,555	20,655	36,120	95,895
고아원							540
결핵환자							3,120
장애자							1,320
소아과병원							840
기타 계							5,820
총 계	34,860	28,950	17,775	38,520	62,190	109,260	297,375

- 콩 - 식단에서 단백질 부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콩은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다. 일부의 곡물 대신 두류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배급 시스템을 통한 고가의 상품 배분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수혜자가 그들의 할당량을 완전히 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충분한 감시가 허가되었을 때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혼합영양강화식품〉

조사단은 5달 간 610만 명의 취약계층에 총 13만 7천 톤의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고 식량공급이 불안정한 5개 도(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의 군에 거주하는 402만 9천 명의 주민에 9만 7백 톤의 혼합영양강화식품을 제공

표 11. 5개월간 지역별 혼합영양강화식품 요구량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5세미만)	유치원생 (5-6세)	초등학생 (7-10세)	중학생 (11-16세)	노인 (60세이상)	취약계층 총계
배급량 (g/1인/1일)	150	150	150	150	150	150	
최우선 지원(전지역)							
량강도	698	1,170	518	1,103	1,778	2,250	7,515
함경북도	2,318	3,825	1,553	3,398	5,333	7,088	23,513
함경남도	3,038	5,108	2,070	4,478	6,998	9,585	31,275
강원도	1,485	2,453	945	2,138	3,735	4,208	14,963
자강도	1,260	2,138	900	1,868	2,925	4,298	13,388
우선순위계	8,798	14,693	5,985	12,983	20,768	27,428	90,653
차선지원							
평안남도	743	1,215	473	1,035	1,643	2,205	7,313
평안북도	1,103	1,823	765	1,553	2,655	3,578	11,475
황해남도	1,238	2,070	900	1,980	3,263	4,343	13,793
황해북도	1,193	1,913	765	1,710	2,768	3,420	11,768
차선순위계	4,275	7,020	2,903	6,278	10,328	13,545	44,348
고아원							270
결핵환자							1,170
장애자							495
소아과병원							315
기타 계							2,250

- 식량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4개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식량부족 군에 거주하는 197만 1천 명의 취약계층에 4만 4,300 톤의 혼합영양강화식품을 제공
- 기타 10만 명의 취약계층에 2,300 톤의 혼합영양강화식품을 제공.

〈대응방안〉

식량과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임산부와 수유부 - 식량배급 시스템의 배급대상자, 협동농장 거주자에게 임신과 수유의 전체기간 동안(1000일)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가 균형 잡힌 혼합식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곡물과 혼합식품은 식량배급소 또는 협동농장 내의 식량배급소를 통해 임산부와 수유부에 분배될 수 있다.
- 5세 이하의 유아 - 특별한 영양적 필요조건 때문에, 6개월에서 5살 사이의 유아

에게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가 균형 잡히고 단백질이 풍부한 혼합식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 보육원, 유치원, 가정의 아이들 - 센서스 2008과 MICS 2009에서 보고된 북한의 높은 진학률을 고려해 볼 때, 교육기관을 통한 식량 배분은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친척이나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예상보다 많았다. 이들 또한 혼합식품을 지원받아야 한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 - 초등학생에 영양강화비스킷(fortified biscuit)을 제공하는 것은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양강화비스킷은 혼합식량을 대체할 수 있다.
- 시설의 어린이들
 - 고아원 -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곡물과 혼합 식량 모두가 제공되어야 한다 (탁아소, 아동센터, 기숙시설)
 - 소아과 병원 -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소아과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질병에 걸린 아이들의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 노인
 - 노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 중 하나로 구분되었다. 곡물과 혼합식품은 식량 배급소 혹은 협동농장 내 식량배급소에서 노인 배급대상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 대가족 - 대가족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 중 하나로 구분되었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즉 아이들과 노인이 많은 가구는 식량부족에 취약하다. 부양 대상자인 아이들과 노인들이 식량을 지원받는다면 대가족 가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노동능력이 제한된 사람들 - 만성적 질병이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만성적·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요양원이나 외래환자 전문 병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식량배급소 혹은 협동농장 내 식량배급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대응 - 자연재해, 특히 홍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종자를 위한 식량 - 겨울 동안 심한 추위로 인한 씨감자 손실은 올해 식량사정의 가장 큰 충격요소다. 종자로 사용될 수 있는 감자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곡물을 제공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콩 제품 교환 쿠폰(voucher) - 식단의 단백질 및 식용유 부족은 심각하다. 콩 제품은 대다수 인구에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원천이다. 국영상점은 두부, 된장, 식용유를 포함하는 콩 제품을 배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사단은 취약 가구와 개인들에게 식용유와 고단백 콩 제품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쿠폰 제공의 실행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9.2. 영양 및 보건 증진 활동

조사단은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영양과 보건 증진 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아이들의 영양부족이 합병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되도록 탁아소, 유아원, 지방 진료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 기관의 직원들에게 팔둘레(MUAC) 측정을 위한 테이프와 그 사용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 모든 병원에 심한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성 식품(RUTF와 F-100)을 적기에 제공한다. 지역기반의 영양실조 관리를 현재 4개 군으로부터 25개의 취약 군까지 확장한다.
- 안전한 음용수, 비누의 이용, 위생 개선, 6개월 이하 유아에 대한 모유수유와 2세까지 모유수유의 장점, 유아원과 탁아소에서 적절한 식습관 등에 대해 교육한다.
- WFP가 활동할 취약 군에서 6~24개월 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영양보충제 60봉지의 3회 지원)를 확대한다. 이 프로젝트는 14개소의 유아원과 UNICEF가 중점지역으로 선정한 8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위 기관들에서 지방 보충영양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전국적으로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해 다양한 미량영양소 보충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유아원, 빈곤한 탁아소, 병원 및 지방 의원의 위생과 물 공급을 개선한다.
- 설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군 병원에 저농도 오스모몰(osmolality) 경구용 수액제(Oral Rehydration Solution, ORS)와 정제 아연 약제를 제공한다. UNICEF는 WHO와 UNICEF에서 추천하는 “급성 설사의 위생적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북한의

보건당국이 모든 진료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급성 호흡기 질환(ARI)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캠페인을 통해 모든 요원들에게 이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준다.
- 조사단은 14개소의 유아원, 14개 고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4개 기숙시설, 탁아소, 초등학교, 병원과 지방 진료소의 위생과 물 공급이 개선되기를 권고한다.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위생습관이며, 이는 식량과 영양공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 영양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군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철저하게 한다.

9.3. 농업 지원

2010년 조사에서는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항을 권고했다. 본 후속 조사와 2010년 조사의 권고 사안들은 관련이 있다. 씨감자 저장시설 개선, 곡물 건조 시스템에 대한 지원, 콩 생산 향상을 위한 지원, 양식과 텃밭에 대한 지원, 공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확후 손실에 대한 조사 수행,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비료 및 비닐박막, 양질의 작물 및 채소 종자 제공 등이 그것이다.

-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치: 훈련, 자재, 기반시설, 백신 구입, 감시와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소 100만 달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 씨감자 저장소의 개선: 씨감자의 손실이 매년 25% 정도로 발생해 왔다. 2010/11년에는 오랜 기간 추위가 지속되어 70%에 이르는 큰 손실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씨감자는 연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하 저장소에 저장되어 왔다. 몇몇 저장소는 최대 100톤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생산 제약에 대해 인지하고, 최근 몇 년 동안 FAO와 기타 농업기관들은 저장방법과 저장소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다. 네덜란드의 자금지원을 받은 2008/09년 프로젝트에서 FAO는 북한 농업성 및 농업과학원과 협동으로 5개 도의 11개 협동농장에 신형 저장고를 제공했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감자생산 지역(특히 감자가 식량 안보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북동부 지역)에서 그 저장고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 곡물 건조 시스템의 개선: 수확기 곡물의 높은 수분 함량은 수확 후 손실에 큰 요인이다. 지난 2010년 9월 말에 2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곡물이 군(county) 저장소에 배송되었다. 이미 곡물의 일부는 사람이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었고, 건조시설이 없어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 농촌에서는 곡물을 도로

와 같이 평평한 곳에서 건조하는데,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서 곳에서 바람을 통해 건조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따라서 곡물건조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두류 생산증대: 도시와 농촌 모두의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 콩의 생산량이 적어 된장과 간장이 부족하고, 국영상점에서 식용유의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콩의 시급한 공급 증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생산증대를 위한 국내외적 지원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 양식 확대: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주민의 식사에서 어류는 식단을 다양하게 하고 단백질을 보충시킬 수 있다. 농촌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대부분 양어가 가능하다. 농장의 양어장에서는 이미 매년 5톤/ha까지 생산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일부 농장에서는 논에서 양어를 하고 있다. 양어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적 지원이 필요하다.
- 텃밭의 개선: 텃밭에서 생산된 채소, 콩, 기타 곡물들은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상당량의 식량을 제공한다. 텃밭의 생산물은 생산자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친지들에게도 공급되기 때문에, 텃밭의 생산성 증대는 식량 안보를 증진시킨다. 따라서 조사단은 협동농장 내 텃밭의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양질의 종자, 비닐, 비료, 농약, 기술적 훈련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수확후 손실: 수확후 각 단계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량화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투입의 증대: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료, 비닐, 양질의 종자 공급이 증대되어야 한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 인민생활에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1.14)
 - 김정일은 “우리는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틀어쥐고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함.
 - 농장과 연관부문 공장·기업소에서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의 편지에 호응하는 궤기모임이 진행되었음. 궤기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를 낭독한 후 토론을 진행함.
 - 사리원시 미곡, 함주군 동봉,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농장원 궤기모임에서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이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낼 것이라고 언급함.
 - 만경대 구역 만경대 남새전문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장원들의 경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맞게 작물배치를 바로하고 다수확 품종을 심으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 것에 대하여 언급함.
-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현재 세계적인 식량문제는 2008년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임. 성, 중앙기관들로부터 공장·기업소들, 가두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농기구와 영농자재, 거름을 농촌에 더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확고를 높일 과학적·동원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야 함.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각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알곡작물 품종을 선택하고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아울러 기본 작물인 강냉이와 논벼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어야 함.
-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농촌지원의 기본임.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에서는 전기와 연유, 비료, 농약, 트랙터, 농기계 부속품 등 영농설비, 자재를 국가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함.
-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로동신문 2.4)
 - 김정일은 “우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힘 있게 불리일으켜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제일주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음. 농촌경리 부문에서 본보기 농장의 일꾼들과 당원들은 더 높은 알곡생산 성과로 보답해야 하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서 거둔 성과는 널리 일반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이러한 본보기 농장을 따라잡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벌려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 농업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로동신문 2.6)
 - 김정일은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늘리고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월 말 현재 도 안의 농촌에서는 백수십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도시 거름은 지난 해에 비해 2배 정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원산시 용천협동농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을 비롯한 현지도 단위 농장에 내려간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올해 농사의 성과는 지력을 높이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하면서 농장원들에 거름

생산을 독려하였음. 이에 도 안의 농장에서는 기름생산을 위한 협동농장 간, 작업반 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도당위원회 사업에서 농촌경리 부문 일꾼들의 기술실무 강습을 통해 과학기술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 도당위원회 일꾼들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강습제강을 바탕으로 안변군, 창도군, 평강군, 이천군에서 군급 단위 농촌부문 일꾼들에게 기술실무 강습을 진행하였음.
-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 농사차비를 다그친다 (로동신문 2.8)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 선천군 일꾼들의 경우, 여러 해 동안 농사과정에서 확고히 파악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준비하는 사업과 함께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를 새해 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여 조직사업에 힘쓰고 있음.
 - 은률군 금천협동농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1천여 톤의 해염토를 파내어 기름 원천을 마련하여 올해 농사의 전망을 좋게 하였음.
 - 영광군 홍봉협동농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물길가시기를 끝냄으로써 농장에서 모든 포전마다 관개수가 잘 흘러가도록 마련되어 올해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음.
-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업기술적 대책 (로동신문 2.27)
 - 김정일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입니다.”라고 말함.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서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을 알고 그에 맞게 기술적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올해 기온은 봄철과 여름철의 경우 평년 정도이거나 약간 낮고 가을철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강수량은 봄철에 평년보다 약간 적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3월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저온현상이, 4월에는 가뭄현상, 7월 일부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한 주요농작물 비배관리 대책으로서 논벼농사에서는 논의 지력을 높이고 벼모를 튼튼히 키우며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높여 평당 이삭수와 이삭 당

여분 알 수를 확보하는데 힘써야 함. 질 좋은 퇴비와 흙보산 비료를 생산하고 씨앗소독과 모관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원그루 논벼의 모내기를 제때에 끝내야 함.

- 뿌리썩는 현상, 추락현상이 심한 논에서는 뿌리기능을 높여주는 이랑 또는 두둑식 재배방법을 적용할 것을, 앞그루감자와 봄밀보리에 의한 논두벌농사 면적을 늘리고 종자준비와 적지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외에도 감자 농사에서는 앞그루 감자 생육을 앞당기며 가을감자 밭적지를 올바로 정하고 다음 해 심을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함.

○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3.5)

- 토지정리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모든 논밭을 기계화 포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방별, 지대적,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토지의 지력을 높이고 작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부침땅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간석지 개간에 힘써 나라의 국토를 넓혀야 하며, 토지보호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자연피해로부터 토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함.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비료, 기름과 트랙터 부품품, 각종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는 등 농촌정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쌀이 많아야 군력도 강화되고 강성대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사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힘을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과학영농

○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로동신문 1.24)

- 김정일은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속에 혁명적인 과학연구기풍을 세우고 그들이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많이 내놓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말함.
- 대학의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의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종자를 찾아내어 그것이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임.

- 숙천군, 평원군, 증산군, 대동군을 비롯한 도 안의 여러 지역들에 나간 교원, 연구자들은 정초부터 과학농사에 전념하고 있음. 평원군 원화리에 나간 교원, 연구자들이 비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논·벼, 강냉이, 목화다수확 재배기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유기광물질비료생산기지를 꾸려 (로동신문 1.28)
 -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고산군 혁창협동농장의 일꾼과 기술자들이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인회토를 가지고 유기광물질 비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음.
 - 새해공동사설에서는 농장에서 모든 논밭에 정보당 더 많은 유기광물질 비료를 내는 것을 중요 목표의 하나로 정했음. 작업반 일꾼과 농장원들이 힘을 합쳐 인회토와 부식토 등 원료생산에 힘쓴 결과 비료생산을 늘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온실건설도 성공하여 겨울철 조건에서도 질 좋은 유기광물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업전선에서 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로동신문 2.9)
 - 김정일은 “농업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나라의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황해남도의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농업과학원이 힘쓰고 있음.
 - 감자연구소,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는 역병에 면역성이 강한 감자품종을 비롯하여 다수확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대거 도입하여 넓은 면적에서 생산성을 확증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무병감자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무비수르 감자원종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자들의 투쟁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농업과학원에서는 각 도에 있는 분원을 통하여 농업용 나노살균제, 다원소 액체비료, 강냉이 종자 피복제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함. 이에 농업화학화연구소와 식물보호화학연구소 등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

여 도 분원이나 도 농촌경리위원회에 생산기지들을 잘 꾸려 도에서 필요한 양을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작물재배연구소, 토양학연구소 등에서는, 농업성과 각 농업대학과 긴밀하게 협동하여 비료와 농약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용비료 원천을 이용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적극 찾아내 올해 농사의 첫 공정에서부터 도입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아미노산미량원소 복합비료 연구도입 (로동신문 2.17)

-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과학자들은 미량원소 비료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개발하여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금강약돌 연구집단에서 개발한 이 비료는 소독효과가 좋아 씨앗소독제로 쓸 수 있으며, 시비효과가 높고 작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효과성이 큼. 여러 협동농장에서 도입한 결과, 종전보다 싹트는 기일을 앞당기고 뿌리의 발육을 촉진시키며 식물효소의 활성화와 엽록소함량을 높여주고, 모마름병, 벼열병 등 여러 가지 병을 막는데서 효과가 좋았음.

○ 들끓는 농업과학연구기지 (로동신문 2.23)

- 김정일은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 농업과학 분원에서는 이미 국가품종으로 등록된 주요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도를 위해 현지로 떠나고 있음.
- 논벼 연구집단에서는 주요 생태지역별로 영양모, 속성모 재배에서 합리적인 밀도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하고,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새 종자의 생산 도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쓰고 있음. 논벼의 병해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종자처리, 논벼재배에서 살리칠산의 이용, 기후변화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성과를 내는 과학농사 (로동신문 2.25)

- 김정일은 “농업혁명은 곧 농업과학 기술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여러 가지 작업

을 동시에 하는 능률 높은 토양관리 기계가 전국 도처에서 생산, 이용되고 있음.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벼모를 내면서도 비료 심층시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모내는 기계를 개조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 함경도를 비롯한 전국의 농촌에서 연유절약기와 여러 가지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농업성의 일꾼들은 여러 단위에서의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다매체 편집물로 만들어 해마다 전국의 농촌에 보급하고 있음. 농작물생육예보와 기상예보, 영농공정별 기술적 대책을 도, 시, 군에 통보해 모든 영농작업을 해당 지방의 특성 및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만경대 남새전문농장 및 염주군, 봉천군, 황주군 등 전국의 농촌에서 우렁이를 이용하는 논벼농사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선진모 기르기 기술, 논벼이랑재배, 강냉이 두줄모아 심기 등 선진재배방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음.
-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키며 (로동신문 2.26)
- 평안남도 농업과학분원에서 충분한 검증, 모의실험 단계를 거친 선진영농기술이 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있음. 농업 정보 연구집단에서는 기상과 토양에 대한 자료 등 농사에 필요한 가치 있는 실용자료에 기초하여 농업자료기지를 구축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
 - 아울러 도의 실정에 알맞은 벼 품종 육성 및 선발도입과 재배, 각 지방의 생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강냉이잡종 선발과 채종방법 연구 사업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고 있음.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적제품 개발에 힘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인 비결 (로동신문 3.1)
- 김정일은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입니다.”라고 말함.
 - 안악군 경지협동농장의 경우, 영양모에 의한 논벼재배 방법을 전 면적에 받아들여 노동력 예비를 얻어내고 벼냉상모판 자재를 종전보다 70% 정도 절약하면서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내고 있음.

- 작업반 일꾼들은 분조에 내려가 영양모에 의한 논벼 재배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부터 모내기와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는데 힘씀. 품종별 생육기일과 생물학적 특성, 기상기후 및 토양의 특성 등을 파악한 후 씨뿌리기 기간을 정하고 모판흙 두께를 정확히 보장하여 농사를 지은 결과, 노동력과 모판자재를 70%나 절약하면서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증명되었음.
 - 일꾼들은 이에 기초하여 모든 작업반, 분조에서 영양모에 의한 논벼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농업생산의 정보화 적극 추진 (로동신문 3.10)
- 김정일은 “농사에서든 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신과학기술을 우리농업의 실정에 맞게 적극 연구도입하여 주체적인 영농체계와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알곡생산에서 대혁신, 대변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자강도의 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업과학분원, 강계농립대학의 연구원, 교원들은 품종배치를 과학화하고 영농공정의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새로 구축한 자료는 도 안의 토지에 대한 포전별, 필지별 조사자료, 북부고산지대 기상자료, 여러 가지 작물의 특성자료, 토양의 산성화 정도와 부식함량 등이 구체적으로 입력되어 있음.
 - 또한 포전별 과학농사를 위한 종합표를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의 분조장에게 빠짐없이 전달하였음. 종합표를 바탕으로 협동농장의 포전별 실태를 파악하고 당면한 소식회, 유기질비료, 흙보산비료 생산, 기상조건에 맞는 품종선택 등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영농을 지휘해 나가고 있음.
- 주체농법을 틀어쥐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로동신문 4.10)
- 김정일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은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장악지도하며 농촌에서 영농조직사업과 노력, 설비자재, 재정 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천군에서는 모 종류별 씨뿌리기에 있어 실정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할 것을 중시하였음. 신천군 협동농장에서는 벼모의 종류별로 생육과정을 따져본

후 군의 지대적 특성과 기상조건, 농사조건 등을 고려하여 모 종류별로 씨뿌리는 양을 새롭게 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군의 실정에 맞게 모내기 최적기를 보장하면서도 벼모가 사름과 가지 치는 기간에도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속성모와 일반냉상모를 많이 키우도록 하였으며, 모 종류별, 품종별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세웠음.
- 또한 씨뿌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모판재료 보장을 앞세우고 이미 씨를 뿌린 모판이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 특히 군에서는 속성모와 일반냉상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복토와 모판 차단재료를 제때 보장하도록 힘쓰고 있음. 이처럼 신천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2. 벼농사

□ 농사차비

- 영농공정을 앞당기기까지 (로동신문 1.14)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운전군 관해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새해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이 농장은 영농공정을 앞당기고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털곡이 끝난 다음 날부터 농사차비를 시작하였음.
 - 결국, 이 농장의 전반적인 농사차비는 지난 시기에 비해 앞당겨지게 되었으며 계획보다 10일 이상이나 앞서 나가고 있어 농사차비는 앞당길수록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 농사차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18)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군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중요한 방도 중 하나를 농사차비

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찾을 수 있다.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동농장 작업반에서 우물파기를 진행한 결과, 새해 들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우물을 파는 성과를 거두었음.

○ 올해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 (로동신문 1.27)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말함.
- 서해별방 농촌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차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농촌에서 이미 천수백만 톤의 거름을 생산해놓고 매일 수십만 톤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음.
- 재령별의 일꾼과 농업근로자의 경우, 알곡생산 증대에 있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거름 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농사차비에서 높은 혁신적성과를 (로동신문 2.19)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 강남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흙보산 비료를 비롯한 거름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농장일꾼들에 알려주어 거름생산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음.
- 군에서는 생산된 거름을 제때에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에 힘쓰고 있음. 거름을 실어내기 위해 각종 운반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트랙터, 소달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농사차비를 간지게 해놓은 보람 (로동신문 3.15)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말함.
-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일꾼들은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을 봄철 영농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고 부식토 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쓰고 있음. 농장에서는 모판 온도를 높여주어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바람막이 바자를 높이 쌓아올리고 있음.

-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분조 창고마다 중소 농기구를 넉넉히 마련해 놓고 작업반에서는 물잡이를 다그치면서 물길가시기도 질적으로 해놓았으며, 수리분조원은 제 힘으로 중소농기구 수리정비를 끝냈음.

□ 씨뿌리기

- 벼냉상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고 주체농법에 따라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였음.
 - 신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백석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요구를 알려주고, 벼 품종별에 따르는 모내기 날짜 등을 타산하여 최적기에 씨뿌리기를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모판 고르기와 수평잡기, 씨뿌리기 등 공정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있으며,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세우고 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최적기를 정하고 씨뿌리기에 들어간 웅진군의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 비료와 생물활성 퇴비를 넉넉히 마련해놓고 모판을 만드는 등 일정계획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연백벌의 농촌에서는 대용비료와 거름, 모판자재를 앞세워 마련하면서 씨뿌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질 보장을 우선으로 놓고 (로동신문 3.24)
 - 재령군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에 힘쓰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봉천협동농장 제4작업반을 씨뿌리기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벼모를 키우는 방식에 따라 씨뿌리기 방법이 다양해진 조건과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많은 거름과 흙보산 비료를 마련하고, 모판자재, 소농기구를 넉넉히 갖추어 놓았음.
 - 삼지강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종자처리를 잘해야 씨뿌리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선별과 소독, 싹틔우기 등 기술적 공정을 거쳐 싹틔운 종자가 작업반에 계획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언급함.

- 영도업적단위들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로동신문 4.3)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는 기계의 수리정비와 소농기구 준비, 모판 만들기를 끝냈으며 씨뿌리기 일정계획도 봄철의 기상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씨뿌리기 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생육기일을 앞당기도록 세웠다고 언급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구체적인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벼모판에 미량원소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종자살균제에 의한 종자처리 등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씨뿌리기 일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및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기와 앞그루 감자심기에 힘쓰고 있음.

3. 밭농사

□ 이모작 동향

- 두벌농사 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2.21)
 - 김정일은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장강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꾼들은 지난 해보다 넓은 면적의 밭에서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남새농사를 지을 두벌농사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아울러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서는 우량품종의 감자종자가 추운 날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으며, 올해 두벌농사에 필요한 봄보리, 봄밀종자 공급을 끝냈음.
 - 두벌농사포전에 유기질 비료와 거름을 더 많이 실어내어 지력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많은 양의 흙보산비료 원료가 마련되었음. 군에서는 두벌농사에 필요한 온실을 가지고 있는 협동농장에 수백 m²의 건설용 목재와 1,500여 m²의 비닐박막을 해결해주었음.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로동신문 3.30)
 - 김정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

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계군에서는 앞그루 감자농사 면적을 지난 해보다 수백 정보 늘였고, 3월 25일부터 4월 초까지 실정에 맞는 겹재배 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앞그루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운전군 송학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지난해보다 1.3배로 늘리고, 일꾼과 농장원은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받돌 거르기, 흙갈이, 소석회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포전마다 질 좋은 유기질 비료와 흙보산 비료를 뿌렸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앞그루감자농사와 새땅 예비 (로동신문 3.6)
 - 김정일은 “인민생활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별방지대 농장의 포전은 대체로 습기가 많아 제한된 논에서만 앞그루감자농사를 하였으나, 정주시의 논벼 농사를 위주로 하는 별방지대 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늘렸음. 포전의 특성에 맞게 논앞그루감자농사 면적과 밭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늘리고 가뭄에 대비해 관수대책을 세운 석산협동농장의 경험을 오산, 침향, 용포협동농장을 비롯한 시 안의 농장에서 일반화하였음.
 - 앞그루감자포전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겹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새땅 예비를 찾아내는 데 힘쓴 결과, 정주시에서는 올해 감자농사 면적을 지난해 보다 수백정보 더 늘여 생산의 담보를 마련하였음.
-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앞그루감자심기를 다그치자 (로동신문 3.28)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는 것만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연안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냉상처리, 지력 높이기에 힘을 넣고,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에서는 감자농사에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앞그루 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내도록 힘쓰고 있음. 겨울 동안 저장고에 잘 보관했던 감자종자의 대부분을 싹틔

우기 위해 야외감자종자 싹틔우기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음.

- 수안군 용현협동농장에서도 포전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겹재배 방법과 부침땅의 지력과 통풍조건, 일조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제때에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앞그루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앞그루 감자농사준비를 앞세운 비결 (로동신문 2.23)
 - 김정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함.
 - 숙천군 약전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유기질비료 생산과 흙갈이 실적을 높이고 있는 등 앞그루 감자농사준비에 힘쓰고 있음. 이 농장에서는 구운흙, 진거름 등 거름원천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다기슭의 흙을 이용하여 흙갈이를 진행하여 지력을 높임.
 - 아울러 품종배치와 재배방법의 문제를 중시하여 두줄모아 심기, 사이그루 재배방법의 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자와 영농자재 준비에 힘씀.
- 앞그루 감자농사 준비를 실속 있게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올해 봄날씨 조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앞그루 작물의 생육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싹틔우기 시기부터 일정한 온습도조건을 갖추어 싹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선천군 원봉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야 말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하면서 태양열 온실건설과 비닐박막 씌우기에 힘쓰고 있음. 아울러 온실 안의 온습도 보장에 힘쓰고 잎덧비료 주기를 진행하여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감자종자 생산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 있음.

5. 축산

□ 축산동향

- 축산물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2.3)
 - 김정일은 “우리가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면 그들의 식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인구 한 사람당 식량소비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사리원·강계·평북 돼지공장 등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첫 달 축산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데 이어 2월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높은 새끼생산과 육성률을 보이고 있음. 올해의 축산물 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벌이고 있음.
 - 사리원 돼지공장 일꾼들은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종축생산체계를 세워 새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이들은 돼지우리 조건을 개선하여 자체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원종체계를 세워 새끼 생산 및 육성률을 높이고 있음.
- 먹이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로동신문 2.3)
 - 김정일은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신의주 닭공장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생산 증대를 위해 먹이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 벌렸음.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종균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휘한 결과 ‘우리 식 종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배설물, 부산물을 대용먹이로 적극 이용하기 위한 생산방법을 완성하였음.
 - 아울러 대용먹이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하루먹이 소요량을 잘 타산하고 공급체계를 바로 세우며 필요한 양의 먹이를 제때 주도록 한 결과, 대용먹이를 가지고도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산성이 높은 품종개량에 큰 힘을 (로동신문 3.2)
 -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집짐승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과학자들은 축산 과학기술을 발전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연구 집단에서는 우수한 종자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완성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종자개량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집짐승의 인공수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공수정 기구를 제작한 과학자들은 새끼생산량이 높고 먹이 소비단위가 낮으며 빨리 자라면서도 고기의 맛이 좋은 여러 품종의 돼지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이는 전국의 여러 돼지공장에 도입되어 우량품종의 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재래종염소를 젓을 많이 내는 우량종염소로 개종하기 위한 종축체계를 세워 우량품종을 많이 얻어냈으며, 노동력과 먹이를 절약할 수 있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짧은 기간에 늘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축산물생산에 계속 큰 힘을 (로동신문 3.23)
 - 김정일은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문제를 풀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올해 축산물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금야군 청년목장의 일꾼들은 집짐승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우량품종의 집짐승 마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집짐승 배설물을 균처리하여 먹이로 이용하는 등 먹이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아울러 집짐승 우리의 위생조건을 청결하게 보장하기 위해 수의방역체계를 바로 세워 집짐승 육성율을 높이고 있음.
 -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는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먹이가공을 잘하여 영양가를 높이고,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등 돼지, 오리, 닭과 같은 집짐승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물길굴 확장공사 추진 (로동신문 2.4)
 - 희천발전소 군인 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지난해 말 물길굴 도강을 성과적으로 관통한 이후, 전반적인 구간에 대해서도 물길굴

확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 있게 진행하고 있음.

- 현장지휘부 일꾼들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물길굴 공사를 전부 끝낼 목표에 따라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시공지도에 힘쓰고 있음. 황해남도려단, 평안북도려단, 미루벌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일꾼과 돌격대원의 경우 확장공사를 먼저 끝냈으며,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려단의 일꾼과 돌격대원은 완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앞선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나가고 있음.
- 위력 떨치는 우리식 관개체계 (로동신문 2.25)
 - 김정일은 “우리는 자연흐름식 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2002년 10월 처음으로 개천-태성호 물길과 백마-철산 물길이 대규모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 이래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여러 군에서는 수 만 kW의 전기를 쓰지 않고 관개용수를 보장하고 있음.
 -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도처의 농촌에서는 실정에 맞는 자연흐름식 물길을 통해 관개용수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있음.
- 물길굴 피복공사 70%계선 돌파 (로동신문 3.1)
 - 김정일은 “우리는 신심과 낙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2월 말 현재 희천발전소 건설장 전 구간에서 물길굴 피복공사 실적이 70% 계선을 넘어섰음.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자강도 여단에서는 갯 피복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으며, 조선인민내무군 환경국 소속 부대에서는 물길굴 피복공사 과제를 90% 이상 수행하기도 하였음.
 -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여단과 황해남도, 철도성 여단 일꾼은 공사속도를 높이는데서 자재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많은 양의 시멘트와 자갈, 모래를 갯 안으로 운반해놓고 그날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나가고 있음.
-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로동신문 3.7)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올해 봄철에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도처에서 보막이 공사, 논관물잡이 등 흐르는 물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일꾼은 현지에 내려가 시, 군, 협동농장별로 부족한 물 양을 보충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각지 관개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양수 설비 수리를 빨리 끝내 저수지와 보조 수원에 물을 채워야 하며, 지하수를 적극 이용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토지정리, 국토관리 사업

- 광산간석지 2계단공사 추진 (로동신문 3.14)
 - 김정일은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 면적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꾼은 여러 방조제 공사와 배수문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 공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1차 물막이 공사를 하여 육지와 바다의 6개 섬을 연결한 이후 광산간석지 2단계 공사인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돌 채취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석화,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굴진을 앞세우면서 굴착기를 비롯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청강기계화사업소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 수송하는데 힘쓰고 있음.
- 전국의 본보기가 될 신심 드높이 (로동신문 3.19)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함.
 - 덕천시는 봄철나무 심기를 시작하여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자 하고 있음. 시산림경영소 일꾼과 종업원은 현지를 밟아 보면서 수종별 적지선정을 하고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면서 봄철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 힘쓰고 있음.
 -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일꾼은 올해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홍수에도 피해가 없도록 강바닥 파기를 통해 강하천을 정리하고 있음.
 - 북청군에서는 여러 개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여 북청-리원 사이의 도로를 정리하는 등 도로공사에 힘쓰고 있음. 수천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여러 개의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며 수십 km 구간에 달하는 도로의 노반강도를 높이하고자 함.

○ 하천을 정리하여 새 땅을 찾았다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부침땅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부침땅 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연산군에서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도 수만 m²의 토양을 처리하여 수km 구간의 하천바닥을 낮추고 제방을 쌓았으며, 여러 정보의 새 땅을 찾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사지대로 전변시켰음.
- 아울러 군 안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을 맡고 나가 노력과 운수 수단을 총집중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으며, 군의 농업부문, 국토부문 일꾼들이 하천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설계를 완성하였음. 지휘부는 하천 바닥파기와 돌 운반, 제방 쌓기에 중기계와 수송 수단을 집중하고 제방돌 쌓기, 도로 닦기, 잔디 입히기에 힘쓰고 있음.
- 하천정리 공사장에서는 군 책임 일꾼이 작업 대상과 조건에 맞게 중기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큰 돌 추어내기를 앞세우면서 하천 바닥파기를 진행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에 힘썼으며, 중기계 운전수들은 하천바닥의 곳곳에 박혀 있는 큰 바위들을 파내고 하루 수백m²의 토양을 정리하였음.

○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로동신문 3.29)

- 김정일은 “봄, 가을 국토관리총동원 기간과 나무심기 계절에 치산치수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천군에서는 하천바닥 파내기와 석축공사, 잔디 깔기 작업, 제방 보강 등을 통해 발산리지구의 약 10km의 하천을 새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태탄군에서는 올해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웠음. 이에 따라 읍지구와 부양, 광탄지구에 적지를 선정하고, 운반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무모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산림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앞세워 보장하고 있음.

7. 산림

□ 임업정책

-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로동신문 3.2)
 - 김정일은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식수절인 3월 2일,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함. 산림이 울창해야 동식물 자원이 풍부해지고 경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도 자체 자원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농경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봄철 나무심기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산림조성사업에 있어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후와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 따라 나무심기를 하고, 실지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용재림, 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나무림 등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산림과학연구기관에서는 산림조성의 사업 추세를 파악해 나무육종과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보호 관리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하며, 나무심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나무모 생산의 발전추세 (로동신문 3.2)
 - 최근 나무모 생산의 발전추세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하는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생산경영 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는 온실재배장과 야외재배장의 온도와 습도를 나무모 생육조건에 맞는 과학기술적 조종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함. 공업화는 원료 준비 및 분쇄공정, 발효공정, 기질혼합공정 등을 거쳐 온실재배장과 야외 재배장에서 나무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약화는 나무모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영양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단지를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나무모 생산을 늘리고 생산기일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 지난 시기에는 나무모를 2~4년 동안 생산했다면 나무모 생산을 공업화, 집약화 한 이후에는 1~2년 동안 키워낼 수 있다고 언급함.

□ 산림조성 및 보호

- 수림화, 원림화의 자랑 (로동신문 3.2)
 - 김정일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라고 말함.
 - 덕천시의 산에는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을 많이 심어져 있으며, 탄광에서는 동발나무를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늘리고 있음. 평원군, 박천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경치를 가꾸고 땃감도 해결하고 있음.
 - 정평군 산림경영소 울성양묘작업반에서는 가지삼목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작업반에서는 회전식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나무모 생산량을 이전에 비해 늘렸다고 언급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등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협동농장 마을에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음.
- 봄철나무 심기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 (로동신문 3.14)
 - 김정일은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강계시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4월 말까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시내 중심의 여러 지구와 공원에 심어 시를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꾸민다는 목표를 세우고 봄철나무 심기에 힘쓰고 있음. 일꾼들은 시 안의 단위들에 나무심기 과제를 명백히 주고 질 좋은 부식토를 마련하여 봄철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해주시에서는 시의 입구부터 중심에 이르는 수십리도로 양 옆을 따라 많은 참대나무를 심었음. 이미 자라고 있는 가로수와 참대나무 사이의 간격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도시의 건물과 도로,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어 입체감을 이루도록 하였음.
- 수림화, 원림화를 통이 크게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

무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에서 도 소재지를 수립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함흥시에서는 함흥대극장, 함흥경기장, 함흥문화전시관, 신흥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주변과 성천강제방 주변에 녹지와 꽃밭을 조성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를 심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 인민위원회 지휘부 일꾼들은 노력조직과 나무모보장, 자재보장 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도시경영설계연구소와 도시설계연구소에서는 시공지도를 통해 양묘장과 함흥시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제때 보장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음.
 - 함흥시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도급기관들과 대학의 일꾼과 대학생들이 거리와 마을, 일터와 학교, 공원과 유원지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힘쓰고 있음.
- 산림을 잘 보호하자 (로동신문 3.22)
- 김정일은 “산림보호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한그루의 나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 만큼 중요하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한 바람이 자주 부는 봄철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원과 근로자들이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해야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산에 들어가는 질서를 잘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언급함.
 - 더불어 산불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방화기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언급함.
- 수립화, 원림화를 전망성있게 (로동신문 3.31)
- 김정일은 “평양의 기본명산들인 만경봉과 모란봉, 대성산과 그것을 감돌며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아름다운 풍치에 어울리게 시안의 여러 곳에 공원과 유원지들을 잘 건설하고 여러 가지 꽃나무, 과일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의 거리를 수립화, 원림화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현장지휘부에서는 나

무모와 자재보장에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음. 이에 따라 거리와 공원, 유원지, 주택구획에 지난 시기보다 5배가 넘는 형식이 다양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떨기나무를 심었음.

- 보통강구역에서는 봉화거리에 가로수를 새로 심고, 도로 양 옆에 떨기나무를 심고 넓은 면적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해냈음. 모란봉구역과 대동강구역, 중구역에서도 수림화, 원림화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함.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로동신문 4.8)
 - 김정일은 “도, 시, 군을 비롯하여 해당 단위들에서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잘하여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황해북도의 시, 군 산림경영경영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봄철나무 심기 사업에 보내주고 있음. 수안군 산림경영소에서 생산한 성이깔나무, 평양 뽕뿌라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 수백만 그루 중 60만여 그루의 창성이깔나무모는 군 내 산에 심었음.
 - 상원군에서는 창성이깔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 봄철나무 심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군산림경영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나무모 뜨기를 기계화하여 나무모 생산의 질과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8. 기타 작물

☐ 과수

- 혁신적인 모교, 빈틈없는 작전 (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모든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올해 총회사에서는 수천 정보의 과수원에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고 올품종과 늦품종을 배합하여 많은 과일나무모를 생산할 목표를 세웠음. 이는 지난해보다 높은 생산계획으로서, 묘목 농장에 힘을 집

중하여 우량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늘어나는 과수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였음.

- 우량품종의 새끼돼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세워 모든 과수농장에서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도록 대책을 세우는 등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를 세워 과일과 고기 생산을 다 같이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과일나무심기 준비를 끝냈다 (로동신문 2.28)

-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기 위해서는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올해는 과수원 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50돛이 되는 해로서, 과수연합총회사 일꾼들은 각 도별, 농장별 과일나무심기 계획을 잘 세우고 영도업적 단위들의 과일나무 심기준비에 있어 기술적 지도를 진행하였음.
-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용전, 덕성과수농장의 경우 거름생산에 힘쓴 결과 새해 첫 달 거름생산 계획을 가장 먼저 수행하였음.
- 황해남도의 장연과수농장에서는 새로 조성한 키낮은사과나무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거름, 니탄 등 거름원천을 총동원하여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였음.

○ 우량품종의 과일나무심기 시작 (로동신문 3.16)

- 김정일은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들을 선택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야 과일생산을 빨리 늘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봄철을 맞아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키 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고 있음. 각지 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토지정리와 구덩이 파기, 거름 실어내기, 과일나무모 확보 등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음.
- 북청, 용전, 덕성 과수농장에서는 군에서 콩크리트 지지대 생산에 필요한 철근과 많은 거름을 제때에 보장해 준데 맞게 과일나무심기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대규모과일생산기지를 번듯하게 일떠세우자 (로동신문 3.31)
 - 대규모의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 과일가공기지로 세우기 위한 목표 하에 고산과수농장의 현대화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618건설돌격대원은 지금까지 수백정보의 토지정리, 수십km의 도로건설, 많은 과일나무심기와 살림집건설 등 전반적 공사를 다그쳐 1,2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 강원도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공사장에 질 좋은 거름 5만 여톤과 작업공구를 비롯한 물자를 마련하여 공사장에 보내주는 등, 618건설돌격대원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음.
-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자 (로동신문 4.4)
 - 해마다 과수원조성사업이 힘 있게 벌어져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기지가 꾸러지고, 집집의 뜰에도 과일나무가 심어져 살구동네, 추리동네, 감나무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새로운 과일품종이 육종되고 있으며, 사과, 배를 위주로 하면서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수종의 과일나무와 올과일, 늦과일나무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심어 품종구성이 다양해졌다고 언급함.
 - 과수학연구소와 과수시험장, 과수묘목농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과수과학 연구사업과 기술인재 양성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어 자체의 힘, 기술로 맛 좋고 생산성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생산·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아울러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에 새로운 관수방법이 널리 도입되고 과수기계공장과 농약생산 공장이 꾸러져 많은 농기계와 농약이 생산·공급되었다고 언급함.

□ 버섯

- 이채로운 겨울철의 버섯수확 (로동신문 1.30)
 - 백두산밀영 혁명전적지 관리소의 버섯재배실에서는, 여름에는 버섯 원천이 많은 조건에서 겨울에 신선한 버섯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느타리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 후방부서 일꾼들과 재배공들은 재배원료, 재배규모, 생산조건 등에 따라 버섯 종류를 선택한 다음 종균 생산과 재배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알맞은 온도와 습도, 공기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음.

- 이 고장에 흔한 넓은잎나무톱밥과 벼겨를 원료로 생산된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많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음. 관리소에서는 버섯을 대량으로 수확하여 답사자들과 관리소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남새

- 최첨단들과전으로 안아온 열매 (로동신문 3.13)
 - 김정일은 “남새농장에서 전변을 가져오자면 태양열에 의한 남새생산방법과 같은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남새 생산에 필요한 연구기지와 수경온실, 태양열박막온실, 넓은 면적의 연구포전을 가지고 남새종자와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전국에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작물종류와 품종의 생육시기에 따르는 영양액의 산도와 농도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남새재배에 적합한 온도, 습도, 빛 조건 등을 수감요소의 설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오이, 토마토 등 20여개의 작물에 수십 개의 품종을 새로 육성하고 무난방 박막온실에서의 겨울철가두배추생산 기술을 비롯한 새 기술을 개발하여 종전에 비해 생산성과를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으며, 해마다 여러 품종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남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 추진 (로동신문 3.23)
 - 김정일은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남새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 남새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영농공정별로 기술적 지도와 조직사업에 힘쓰고 있음. 일꾼들은 남새 농사를 위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거름을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해 힘쓴 결과, 모든 농장에 정보당 50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아울러 남새농사에 필요한 비닐박막 등의 영농자재를 제때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근로자 속에 깊이 들어가 주체농법에 따라 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해설선전 사업을 벌리고 모범을 보이고 있음. 더 많은 남새밭을 조성하고 수백동의 남새온실을 건설하며, 분수식 관수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이에 따라 시 안의 모든 농장에서는 시금치를 비롯한 남새작물심기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토마토, 가지, 고추, 수박 등 남새작물 씨뿌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봄남새를 넉넉히 공급할 목표 (로동신문 3.30)
 - 김정일은 “남새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함.
 - 강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높은 남새 생산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봄배추, 봄무를 생산하고자 힘쓰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도급기관, 시급기관의 지원을 받아 남새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수천 정보에 달하는 남새밭에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자급비료를 실어내고, 서산, 석현, 홍주지구에서 캐낸 수천 톤의 니탄을 흙보산비료의 원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봄남새 생산에 힘쓰고 있음.
 - 시 안의 협동농장에 건설된 수천 m²의 온실에서 자란 봄배추, 봄무 등 봄남새모가 남새밭들에 옮겨졌으며, 협동농장에서는 남새모판에 대한 날개 썬우기와 벗기기, 물주기,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특히 영양단지에 의한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음.
- 남새모 옮겨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4.6)
 - 김정일은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부식물입니다.”라고 말함.
 - 낙랑구역 유소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앞선 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지난 해 농장의 일부 포전에서 받아들여 효과를 거두었던 성장촉진제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사용하였음. 아울러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등 남새모 옮겨심기에 힘쓰고 있음.
 - 사동구역의 남새전문협동농장에 내려간 사동구역 일꾼은 앞선 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실한 남새모를 키워내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씨레질과 이랑만들기에 힘쓰고 있음. 또한 양수설비를 수리, 정비하고 물길을 정리하는 등 물 보장 대책을 마련하였음.

9.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부속품생산을 늘린다 (로동신문 2.8)
 - 김정일은 “농촌에 대한 지원은 현시기 농업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농촌에 대한 지원에서 기본은 공업이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희천정밀기계 공장의 일꾼은 농업전선에 보내줄 트랙터 부속품 생산에 힘쓴 결과, 1월에 분사기, 연료펌프 등을 비롯한 많은 트랙터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이 공장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많은 양의 파철을 모아 부속품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유색주물 직장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빈틈없이 생산준비를 하여 베어링강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단조직장에서는 규격 강재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지구 장비를 적극 창안, 도입하였으며 프레스, 공기함마를 비롯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기계 수리를 제때에 (로동신문 2.19)
 - 김정일은 “농기계작업소에서 트랙토르(트랙터)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홍원군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올해 농사차비를 다그치는데 있어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농기계 수리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에 힘쓰고 있음.
 - 일꾼 및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대용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농기계 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트랙터 수리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트랙터 출동식 진행 (로동신문 3.7)
 - 김정일은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것과 함께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말함.
 -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출동식이 3월 4일 만경대구역과 낙랑구역에서 진행되었음. 만경대구역의 책임일꾼들은 올해 농사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데서 찾고,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

비에 힘썼음. 수십 대의 트랙터에 배기관식 연유절약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피스톤을 비롯한 30여 종에 2,400여 점의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수십 대의 트랙터 수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낙랑구역의 책임일꾼들은 연초부터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트랙터 수리정비 사업을 일정계획대로 추진하였음. 구역농기계작업소와 송남협동농장, 정백, 남사, 유소남새전문협동농장 등 구역 내 농장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70여 종에 2만여 점의 부속품을 생산, 재생하여 트랙터와 농기계 수리정비를 마무리하였음.

○ 대용연료를 적극 이용 (로동신문 4.3)

- 김정일은 “우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펴올리고 강성대국의 대문도 우리의 손으로 열어제껴야 합니다.”라고 말함.
- 각지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대용연료발동발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기계 수리와 부속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도입한 전국의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올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70여 종, 수만 개의 부속품을 생산, 재생산함으로써 트랙터와 농기계수리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에서는 시, 군 농기계작업소에서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만들어 자체로 전력을 생산하여 부속품 생산과 농기계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황주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2대의 대용연료발동발전기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부속품을 가공하여 수백 대의 트랙터 수리를 보장하고, 수십 종, 1만 7천여 개의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평안남도에서도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통해 자체로 전력을 생산하여 농기계 수리에 이용하고 있음. 대동군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벼겨를 이용하는 발동발전기를 돌려 많은 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함으로써 백수십대의 트랙터대 수리와 수십대의 연결농기계 수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음.

□ 비료

○ 첫 열흘 동안에 수백만 톤의 거름을 생산 (로동신문 1.14)

- 김정일은 “인민생활 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농업성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새해 들어 첫 열흘 동안 수백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둬.
- 황해북도의 사리원시, 토산군, 장풍군, 송림시의 농업 근로자들은 공동시설의 과업을 받들어 거름생산에 온 힘을 집중하여 새해 첫 열흘 동안의 거름생산 계획을 제일 먼저 수행하였음.
- 황해북도 외에도 각지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총 공격전을 과감히 벌리고 있음.

○ 모두가 거름생산에 떨쳐나 (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당 조직의 지도 밑에 수천 톤의 진거름을 마련하고 수백정보의 논에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내어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일 계획을 세웠으며, 농장의 모든 운반수단이 총 동원되어 거름운반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농장들에서는 확보된 진거름으로 여러 가지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포전별, 필지별 토양조건에 맞게 유기질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사업도 세우고 있음.

○ 효능 높은 아연복합비료 개발 (로동신문 1.28)

-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농촌에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비료는 곧 쌀입니다.”라고 말함.
-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효능 높은 아연복합비료를 새롭게 개발하였음. 새로 개발된 아연복합비료는 산화아연을 주 원료로 하며 닭 배설물과 초무연탄광의 갱수침전물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유기 및 무기 영양소를 포함하는 가루상태의 복합비료로서, 주로 종자를 처리하거나 모판비료로 많이 쓰이게 됨.
- 작물재배에서 아연복합비료를 사용하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고를 높일 수 있으며, 논벼재배에서 뿌리가 썩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

- 톱밥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 (로동신문 2.9)
 - 김정일은 “유기질비료문제는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흙보산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 안주시 용흥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니탄이나 부식 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톱밥으로 질 좋은 흙보산 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톱밥으로 만든 흙보산 비료는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풀이나 곡식 짚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
- 유기농법과 농업생산의 발전 (로동신문 2.22)
 - 김정일은 “오늘 세계농업 발전추세는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 유기농법은 화학비료와 살충제, 살초제 등 화학제품보다는 유기적, 생물공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땅의 지력을 높여 많은 농업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함.
 -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힘쓴 결과,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생산이 증대되고 있음. 우렁이를 이용한 논벼비배관리방법, 생물농약에 의한 병충해막이방법 등 영농방법과 기술이 농업생산에서 적극 이용되고 있음.
 - 유기농법은 무엇보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농법으로서, 구체적인 토양성분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지대별, 필지별로 필요한 화학성분량을 규정하고, 흙보산 비료와 유기질 복합비료, 복합미생물비료 등을 과학적으로 배합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유기농법을 도입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숙천군과 운전군, 염주군 등의 농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로동신문 2.23)
 -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는 새로운 생물활성퇴비 생산에 힘쓰고 있음. 새로운 생물활성퇴비는 종전에 이용하던 생물활성퇴비에 비해 농작물 생육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음. 여러 농장에서 이 생물활성퇴비를 농사에

이용한 결과, 땅의 지력이 높아지고 토양의 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여 간석지 논농사를 안전하게 짓는데 효과적이었음.

- 황해도에서는 올해에 새로운 생물활성퇴비를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은률군 삼리농장에서는 지력을 높이고 토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의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신원군 장금농장에서도 생물활성퇴비 생산을 위한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작업반에 실험기구를 마련하여 놓고 생물활성퇴비 생산을 과학화하도록 하고 있음.
-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로동신문 3.26)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여러 가지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에서는 생산능력과 현대화 수준, 경제적 효과성에 있어 의의가 있으며, 규모가 큰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평양시 건설사단 청년돌격대원을 건설에 진입시키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있음.
 - 평양 제1백화점, 평양산원, 평양시 재판소 일꾼이 많은 지원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는 등 시 안의 여러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에서 공장건설을 지원하여 건설자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음.

□ 농촌지원

- 성, 중앙기관 당조직에서 (로동신문 1.16)
 - 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성, 중앙기관 당조직에서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식하여 농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국가영화위원회, 금속공업성, 경공업성, 임업성의 일꾼과 정무원이 농업 근로자들에게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진행하였으며, 철도성, 대성지도국, 국가계획위원회의 일꾼과 정무원이 많은 거름을 실어내는 등 농사차비를 하고 있는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업 근로자의 열의를 북돋아 주고 있음.

- 인민군 군인들 농업전선을 적극 지원 (로동신문 1.25)
 - 김정일은 “군인들 속에서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며 인민군대가 강성대국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계속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의 일꾼과 군인들은 인민군대가 농촌지원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짐했음. 이들은 전투정치 훈련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활창대, 삽, 낫 등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 및 생활필수품, 문화기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농촌에 지원하였음.
 - 이러한 인민군 군인들의 농촌지원으로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음..
- 영농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자 (로동신문 2.26)
 - 김정일은 “농사일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며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농촌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오늘의 현실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력과 비료, 기름, 농기계 부속품 등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기계공업, 화학공업 부문 일꾼에게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촌에 보내줄 설비, 물자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농촌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신속히 나르므로써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한다고 언급.
 -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에 있어 성, 중앙기관이 앞장서 농사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강조함.
-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로동신문 3.5)
 - 김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봄에 들어서면서 각 도, 시,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에 힘쓰고 있음.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을 잘 도와주는 것이 곧 농업생산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여 금요노동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농물자를 들고가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사리원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

당위원회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걸이대, 삽 등을 비롯한 수십 종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지원하였음.

- 황해남도의 시,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파비닐과 파고무, 파철 등 유탄자재를 마련하고 비닐박막, 활창대 등의 영농물자를 자체로 마련하여 보내주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의 경우 농촌지원 사업의 중심을 영농물자 보장에 두고 이에 힘쓰고 있으며, 신의주시, 구성시 등에서는 트랙터 부속품과 운반기재, 각종 중소농기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많은 중소농기구를 마련 (로동신문 3.29)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천내군에서는 20여 종, 11만 500여 점의 중소농기구를 농촌에 보내주었음.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진다는 열의를 가지고 군 인민위원회, 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군 인민보안서를 비롯한 군급 기관 일꾼들은 전시회에 물통, 삽, 호미, 낫 등 많은 중소농기구와 각종 농기계부속품을 내놓았으며, 전시회에 내놓았던 각종 중소농기구와 부속품은 협동농장에 전달되었음.
- 협동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매 영농공정에 필요한 중소농기구 품종을 선정하고 농장원수와 경지면적을 따져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 중소농기구 종수와 개수를 확정하는 등 중소농기구를 많이 장만하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 현지도

○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도 (로동신문 3.4)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인 홍석형, 정치국 위원이자 부장인 김경희, 후보위원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후보위원이자 비서인 태종수와 함께 평양남새과학연구에 방문함.
- 김정일은 수경온실과 태양열 박막온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온실마다 잘 자라고 있는 오이, 토마토 등 남새열매와 가두배추 등 잎남새 등을 보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아울러

새로 연구하여 개발한 원형 및 반원형가지, 봄무, 단고추 등이 인민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음.

- 평양남새과학연구소가 나라의 남새 생산을 늘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로동신문 3.11)
 - 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인 김기남, 홍석형, 정치국 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비서인 태종수,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와 함께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 방문함.
 - 김정일은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공정이 완공되면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가 확립될 뿐 아니라, 식량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강조함.
 -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실태를 파악한 후, 의식주에서 기본을 이루는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의무를 강조함.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강추위·전력난에 북한 주민 ‘고난의 행군’

- 대북매체 및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한 평양에서도 전력난으로 난방을 하지 못해 시골로 이주하려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올해 평양의 전력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어 하루 2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혹한과 겹쳐 북한 당국에 대한 평양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열린북한방송은 평안남도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평양시내에 전기사정 악화로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른 지역이 연탄이나 나무땔감으로 난방을 하는데 반해 평양은 전기로 온수를 끓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난방이 곤란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음.

헤럴드경제, "강추위·전력난에 '脫평양'...北주민 '고난의 행군'", 2011.1.26

☐ 작년 북·중 교역 35억 달러... 32% 증가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대량 수출하고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등 ‘연료 돌려막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RFA는 중국의 해관과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양국 교역액이 총 3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 26억 2천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0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 또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8년

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이며, 작년 광물성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함.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로, 전년도 총 원유 수입액 (중국 해관이 발표하지 않은 8~11월 통계치 제외)과 비교하면 98% 증가한 것이며, 휘발유 등의 석유원료, 수송용 자동차, 섬유제품, 곡물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작년 북·중교역 35억달러...32% 증가”, 2011.3.23

□ 북, 휴대전화 이용 엘리트 독점시대 끝나

- 조선비즈가 12일 주최한 ‘북한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투자기회 및 전략’에 참석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텔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근에 방북했을 당시 제공받은 정보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핸드폰 사용자는 55만 명”이라고 밝힘.
 - 베른젤리거 대표는 “북한의 핸드폰 이용자는 55만 명까지 확대됐으며 오라스콤은 연말까지 가입자 100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소규모의 엘리트들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또한 “오라스콤은 북한 지도층이 원하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전역을 통화권으로 삼아 서비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핸드폰 사용 계층을 넓히고 있다”고 언급함.
- 황성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북한방송통신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북한에서는 국방·R&D 분야,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5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중 대부분은 인터넷보다 느린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모뎀을 이용해야 하는데 속도가 30kpbs~1mbps 정도로 매우 느린 동영상 재생은 불가능하고 단순한 웹서핑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함.

데일리NK, “北 휴대전화 이용 엘리트 독점시대 끝나”, 2011.4.12

□ 북한, 금강산에 카지노 추진

-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금강산에 카지노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난 8일 북한이 현대그룹이 가진 금강산 관광의 독점권을 취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언을 중국 선양에서 북한관광 전문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밝힘.
 - 아울러 “북한의 고위간부로부터 수개월 전 이런 사실을 들었고, 북한 당국이 현대그룹과 맺은 금강산 관광 독점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경향신문, “북한, 금강산에 카지노 추진…현대그룹 독점권 취소 후속 조치”, 2011.4.12

□ 북한 장마당 몇 년 동안 급속 확장

-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도 등지의 장마당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음.
 - RFA는 지난 12일 “2009년 10월에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마당을 2002년 당시의 위성사진과 비교한 결과, 7년 사이 곳곳에 건물이 빼곡이 들어서고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등 복잡한 도시로 변했다”고 밝혔음.
 - 황해남도 강령군의 장마당도 2010년 7월에 촬영한 위성사진과 2006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크게 확대되었으며, 황해남도 웅진군 장마당도 2006년 공터로 남아있던 장소에 2010년 건물이 군데군데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국의 위성사진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씨는 이에 대해 “북한 전역에 걸쳐 장마당이 확대되는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모가 큰 도 지역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시, 군, 동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음.
- 노컷뉴스, “북한 장마당 몇 년 동안 급속 확장”, 2011.4.13

□ 김일성 생일… ‘강성대국’ 기대 고취 주력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99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당과 국가기관 간부, 군장병, 근로자, 초대된 외빈들이 김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는 등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음.
-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매체에서는 사설을 통해 김 주석이 토대를 마련한 강성대국 건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강성대국의 기대감을 불어넣는데 힘을 기울였음.

- 노동신문에서는 “올해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대표자회 이후 주체혁명의 새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 들어선 첫해인 동시에 우리 당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언한 2012년을 앞둔 마지막 해”이며 “전체 당원과 군장병, 인민들은 당의 영도에 따라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데일리NK, “김일성 생일…‘강성대국’ 기대 고취 주력”, 2011.4.15

2. 식량 사정

☐ 김정일, 해외공간에 "식량 80만 톤 입수하라" 지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공간을 통해 식량 80만 톤을 입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열린북한방송이 27일 보도함.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로부터 식량 80만 톤을 입수하라고 지난 해 12월 내린 지시를 지난 26일 북한 외교부 소식통에게 확인했다”면서 “80만 톤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의 다섯 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덧붙임.
- 아울러 “북한이 최근 식량 입수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했던 2009년 5월과 유사하다”면서 “추가 도발을 위한 사전 준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이 방송은 북한의 식량 도입 이유가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비하는 차원이며,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도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때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였음.

중앙일보, "식량 80만t 입수하라" 김정일, 해외공간에 지시", 2011.1.28

☐ 북, 식량난 직면하여 지하자원 개발 안간힘

-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 감소와 국제사회 지원 중단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지하자원 수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합작 개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는 중국 상무부와 오는 15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소식을 접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협정에서 금과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된 북한의 무산광산과 희토류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분석했음.
 - 아울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여 지하자원 수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음. 특히 대규모 홍수로 피해규모가 컸던 지난해 하반기의 지하자원 수출 물량이 상반기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국부 유출을 우려해 한때 지하자원 수출규제에 나섰던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은 각각 410만 톤과 160만 톤 이상으로, 석탄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음.
- 연합뉴스, “식량난 직면 北, 지하자원 개발 ‘안간힘’”, 2011.2.9

☐ 북한 재고 바닥에 지역·계층 양극화, 200만 명 극한 상황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배급체계 문제와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올해의 수요와 공급량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은 3~4개월 치에 해당하는 100만 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음.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올해 북한의 식량 공급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448만 톤임. 수치상으로는 보이면 올해 북한은 작년보다 덜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고 재고마저 바닥나면서 식량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고 분석되고 있음.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배급 순위가 낮아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하는 북한 주민을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그 중 시장참여 기회가 없어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어린이, 노인 등 200만 명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음.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군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의 식량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점도 올해 식량사정을 어렵게 할 요인임. 더구나 2008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면서 부족한 식량을 비축한 재고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재고마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일보, “재고 바닥에 지역·계층 양극화, 배급만 의존 200만 명 극한 상황”, 2011.2.25

□ 북한, 미국·국제기구·방북 서방외교관에 식량지원 요청

- 북한은 미국과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유럽국가 소속 외교관에게도 식량지원을 요구하는 등 식량난 타개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음.
- 북한은 앞서 미국과의 비공식 통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에 식량상황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해 해당 기관이 실사에 착수하였음.
-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 같은 북측 움직임은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최소 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로서, 북한이 내년으로 못박아 둔 강성대국 실현을 위해 식량비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세계일보, “‘식량 좀...’ 손 자주 내미는 北”, 2011.3.3

□ 북한, “수많은 주민 아사 위험” 전 세계에 식량지원 호소

- 최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영국을 방문해 “60년 만에 북한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와 지난해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음. 더불어 남한 민간단체 및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 등 수십개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음.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 2~3월 북한에서 현지조사 후 발표한 식량부족 실태결과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88만 6천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533만 8천 톤인데 반해, 북한이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자체 생산량 425만 2천여 톤과, 계획된 상업적 수입 20만 톤이기 때문임.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처럼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식량 배급량을 현재 1인당 하루 400g 수준에서 북한의 최소 하루 필요열량인 2,450kcal의 절반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381g(1,314kcal)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계식량기구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미국도 대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켄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은 지난 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라며 “북한의 식량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북 “수많은 주민 아사 위험” 전세계에 식량지원 호소”, 2011.4.13

3. 가격 추이

☐ 평양 쌀값, 3,000원 돌파

- 평양의 쌀값이 1월 19일 kg당 3,20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첫 3,000원대를 돌파함. 쌀값은 지난 1월 7일 2,100원까지 올랐다가 다음 날 8일 보안서나 보위부, 각 단위별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맞이 기념으로 열흘치 식량이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부 배급 식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폭등한 것임.
 - 쌀값 폭등에 대해 평양시 당의 한 간부는 “외부에서 식량 수입이 늦어지고, 주변 농장들에서 군량미를 다시 강제로 거둬들이면서 평양에 식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 지난 19일, 평양과 평성에서는 달러가 3,400원에 거래되는 등,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뛰고 있는 것도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평양시 당의 한 간부는 이처럼 외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각 기관, 기업소, 무역회사들 사이에 외화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함.
- 좋은벗들, “평양 쌀값, 3,000원 돌파”, 2011.2.5

□ 북한, 화폐개혁 후유증… 5개월 새 생필품값 300~500% 폭등

- 통일부가 2월 25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생필품 가격 변동’ 자료에서 주요 생필품의 평양지역 시장 한도가격이 5개월(작년 2~7월) 동안 3~5배 폭등했다고 밝히고 있음. 평양의 시장 한도가격은 닭고기의 경우 작년 2월 kg당 500~600원에서 7월에는 1,800~2,000원으로, 사과는 kg당 300~400원에서 1,900~2,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평양보다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는 물가가 훨씬 가파르게 올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아울러 통일부는 “만성적 식량난으로 노동자의 결근율도 높아 (생필품 생산) 공장 가동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가 곤란해 가동이 어렵다”며 “기존 공장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 시설 노후, 전력 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은 북한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 더 악화되었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3,000~4,000원으로는 화폐개혁 이후 상승한 물가를 건디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조선일보, “北 화폐개혁 후유증… 5개월새 생필품값 300~500% 폭등”, 2011.2.26

4. 북한농업 일반

□ 북한 농기계 가동률 상승

- 북한의 농기계 가동률이 높아져 농업 생산에 일정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트랙터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가동률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농기계가 2004년까지만 해도 전체 트랙터 6만 4천여 대 중 약 57%인 3만 7천여 대가 가동됐지만, 2009년에는 6만 4천여 대 중 약 72%인 4만 6천여 대, 2010년에는 6만 3천여 대 중 약 73%인 4만 6천여 대가 가동되었다고 밝혔음.
- 부품이나 타이어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트랙터 가동률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연료 공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2010년에는 전기 사정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양수기나 탈곡기 등 농기계

가동률이 약간 오른 것으로 덧붙였음.

-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농기계 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농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상조건의 악화, 외화 부족 및 식량지원 축소 등으로 북한의 전반적 작황 상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밝혔음.

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농기계 가동률 상승’, 2011.2.23

5. 자연재해

□ 북한, 전국에 구제역 비상방역 선포

- 북한 전역에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에 비상방역을 선포하고, 폐사한 소와 돼지를 매몰처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소와 돼지 1만여 마리가 감염되었고, 김낙희 내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비상방역’이 선포되었다고 전했다.
- 통신은 “지난해 말 평양시 사동구역 이현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8개 도에 전파됐다”며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라고 덧붙임.
- 북한 이경균 농업성 국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을 차단하고 소독사업을 진행하고 병 발생 개체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폐사된 부립소, 젓소, 돼지에 대한 매몰사업이 진행되고 판매를 중지시키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북한 농업성은 9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했음. 북한이 구제역 발생 40여 일만에 발병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임.
- RFA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구제역 긴급 구호 요청에 대응해 다음 주 곧바로 수의사와 전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3~5명 규모의 전문가단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연합뉴스, “北, 구제역 발생 확인...전국에 비상방역 선포”, 2011.2.10

중앙일보, “북한, 전국에 구제역 비상방역 선포”, 2011.2.11

내일신문, “북한, 뒤늦게 구제역 발병사실 보도”, 2011.2.11

□ 북, 48곳서 구제역 발생… 1만여 마리 감염

- 북한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 동물보건기구(OIE, 통칭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OIE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농업성이 8일 보내온 구제역 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해 12월 25일 평양시 사동구역에서 소 6마리가 처음으로 구제역에 걸린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북한 전역(함경도 지역 제외)의 4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힘.
- 아울러 돼지 1만 7,500여 마리가 의심사례로 분류돼 1만여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는 의심사례 1,400여 마리 중 500마리, 염소는 의심사례 165마리가 모두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자체 개발한 예방 백신을 접종했지만 구제역 통제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OIE는 현재 북한 당국과 백신 제공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연합뉴스, “北, ‘구제역 보고서’ OIE에 제출..48곳서 발생”, 2011.2.18

동아일보, “北 48곳서 구제역… 1만여마리 감염”, 2011.2.19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1월 중 남북교역액은 12,7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938만 달러에 비해 24.8% 감소(전월 13,057만 달러 대비 2.5% 감소)
- 반입은 7,00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947만 달러에 비해 21.7% 감소(전월 7,432만 달러 대비 5.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8.0%, 전자전기제품 27.7%, 생활용품 7.4%, 기계류 8.0%, 화학공업제품 5.4% 등임.
- 반출은 5,72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991만 달러에 비해 28.3% 감소(전월 5,625만 달러 대비 1.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7.3%, 전자전기제품 27.6%, 화학공업제품 7.3%, 기계류 8.2%, 생활용품 5.9% 등임.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5만 달러로 전월 80.1만 달러 대비 43.8%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입액 7,002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9.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5.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8%)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62.3만 달러로 전월 148.5만 달러 대비 9.3% 증가하고 1월 전체 반출액 5,727만 달러의 2.8%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60.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8%), 분유 등 축산물이 0.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합관 등 임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2월 중 남북교역액은 12,239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350만 달러에 비해 20.3% 감소(전월 12,730만 달러 대비 3.9% 감소)
- 반입은 7,09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635만 달러에 비해 7.1% 감소(전월 7,002만 달러 대비 1.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7.1%, 전자전기제품 23.3%, 생활용품 6.9%, 기계류 6.5%, 화학공업제품 3.7% 등임.
- 반출은 5,14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714만 달러에 비해 33.3% 감소(전월 5,727만 달러 대비 10.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9.3%, 전자전기제품 27.9%, 화학공업제품 9.0%, 기계류 5.7%, 생활용품 6.0% 등임.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1만 달러로 전월 45만 달러 대비 53.3% 감소하고 2월 전체 반입액 7,092만 달러의 0.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19.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39.5만 달러로 전월 162.3만 달러 대비 14.0% 감소하고 2월 전체 반출액 5,147만 달러의 2.7%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2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4%),

분유 등 축산물이 0.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합판 등 임산물이 3.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7%)를 차지했음.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1년 3월 중 남북교역액은 15,631만 달러로 전년 동월 20,200만 달러에 비해 22.6% 감소(전월 12,239만 달러 대비 27.7% 증가)
- 반입은 8,05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1,967만 달러에 비해 32.7% 감소(전월 7,092만 달러 대비 13.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8.4%, 전자전기제품 29.2%, 생활용품 7.8%, 기계류 8.0%, 화학공업제품 3.4% 등임.
- 반출은 7,58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33만 달러에 비해 7.9% 감소(전월 5,147만 달러 대비 47.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9%, 전자전기제품 25.1%, 청강금속제품 14.1%, 기계류 6.4%, 화학공업제품 5.1%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1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8.4만 달러로 전월 21만 달러 대비 82.9%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입액 8,051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6.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1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10.4만 달러로 전월 139.5만 달러 대비 50.8%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출액 7,580만 달러의 2.8%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7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3%), 분유 등 축산물이 0.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07%), 합판 등 임산물이 2.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08%), 합판 등 임산물이 3.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35.9달러(전체 반출액의 0.5%)를 차지했음.

표 1. 2011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97,644	392	0.6	농산물	651,344	1,604	2.8
참깨	37,980	68		쌀	1,918	3	
들깨	20,870	35		감자	393	0	
고추	3,990	5		밀가루	1,782	1	
밤	71,600	229		참깨	42,200	48	
참기름	9,121	16		들깨	19,624	20	
들기름	162	0		사과	78	0	
기타유제가공품	13,329	21		감	19	0	
박류	5,600	0		바나나	336	0	
소주	2,592	4		오렌지	117	0	
맥주	32,400	13		감귤	50	0	
				무	649	5	
				고추	7,100	4	
				기타채소	1,374	3	
				밤	115,600	173	
				대두유	6,199	6	
				참기름	193	1	
				기타식물성유지	660	8	
				기타소스류	2,571	7	
				커피조제품	1,209	3	
				녹차	9	0	
				홍차	4	0	
				제조담배	2,265	60	
				인삼류	452	21	
				소주	1,070	1	
				맥주	85	0	
				기타주류	22	0	
				정당	155	0	
				물	180	0	
				기타음료	22	0	
				곡류가공품	100,572	251	
				빵	137,711	480	
				면류	49,899	108	
				기타농산가공품	155,008	299	
				견	1,818	98	
				축산물	1,985	6	
				소시지	175	1	
				로얄제리	4	0	
				기타낙농품	1,806	5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임산물	60	0	-	임산물	14,055	13	0.02
합판	18	0		합판	225	1	
기타목재류	42	0		섬유판	11,260	7	
				건축용목제품	2,120	4	
				기타목재류	450	1	
수산물	65,485	57		수산물	15	0	
미역	65,485	57		김	6	0	
				미역	3	0	
				기타수산가공품	6	0	
합 계	263,189	450	0.6	합 계	667,399	1,623	2.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35호(2011.1.1~1.31).

표 2. 2011년 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82,076	193	0.3	농산물	468,229	1,230	2.4
참깨	26,560	49		쌀	198	0	
들깨	7,340	12		감자	0	0	
고추	3,120	5		밀가루	1,782	1	
밤	30,600	98		참깨	46,600	49	
참기름	3,616	6		들깨	13,750	13	
들기름	0	0		사과	85	1	
기타유지가공품	5,834	10		감	0	0	
박류	0	0		바나나	0	0	
소주	0	0		오렌지	82	0	
맥주	0	0		감귤	0	0	
기타주류	5,006	12		무	0	0	
				고추	5,320	5	
				기타채소	0	0	
				밤	16,800	25	
				대두유	7,140	8	
				참기름	68	0	
				들기름	1,863	2	
				기타식물성유지	0	0	
				기타소스류	2,151	7	
				커피조제품	4,749	23	
				녹차	0	0	
				홍차	651	3	
				제조담배	2,850	74	
				인삼류	0	0	
				소주	991	2	
				맥주	0	0	
				기타주류	34	1	
				정당	135	0	
				물	1,460	1	
				기타음료	0	0	
				비스킷	1	0	
				곡류가공품	95,771	236	
				빵	132,745	446	
				면류	29,655	63	
				기타농산가공품	102,748	238	
				건	600	33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2,023	9	0.02
				돼지고기	212	2	
				닭고기	8	0	
				소시지	513	2	
				로얄제리	0	0	
				기타낙농품	1,290	6	
임산물	0	0	-	임산물	15,980	34	0.07
합판	0	0		합판	1,660	4	
기타목재류	0	0		단판	220	14	
				섬유판	12,500	11	
				건축용목제품	388	2	
				목제장식품상자	30	0	
				기타목재생활용품	9	0	
				기타목재류	1,173	3	
수산물	19,638	17	0.02	수산물	244,470	122	0.24
미역	19,638	17		김	0	0	
				미역	244,470	122	
				기타수산물가공품	0	0	
합 계	101,714	210	0.3	합 계	730,702	1,395	2.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36호(2011.2.1~2.28).

표 3. 2011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5,910	265	0.3	농산물	650,838	1,715	2.3
참깨	40,320	71		쌀	2,258	4	
들깨	7,860	13		감자	0	0	
고추	5,000	8		밀가루	2,970	2	
밤	40,800	131		참깨	57,845	60	
참기름	3,240	5		들깨	52,280	47	
들기름	14,607	14		해바라기씨	400	0	
기타유지가공품	9,683	22		사과	53	0	
박류	14,400	0		딸기	19	0	
소주	0	0		감	0	0	
맥주	0	0		바나나	50	0	
기타주류	0	0		오렌지	62	0	
				감귤	0	0	
				무	2	0	
				토마토	39	0	
				마늘	73	0	
				고추	1,400	2	
				기타채소	0	0	
				밤	26,400	40	
				대두유	3,564	3	
				참기름	229	1	
				들기름	1,791	2	
				기타식물성유지	0	0	
				효모류	20	0	
				기타소스류	2,184	7	
				커피조제품	3,659	17	
				녹차	33	1	
				홍차	360	1	
				제조담배	460	28	
				인삼류	444	23	
				소주	2,560	3	
				맥주	6,288	9	
				포도주	214	3	
				위스키	873	60	
				기타주류	216	2	
				정당	155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물	4,833	2	
				기타음료	216	0	
				비스킷	78	0	
				곡류가공품	118,871	291	
				빵	156,978	555	
				면류	57,792	143	
				기타농산가공품	142,899	297	
				견	1,770	97	
				면	500	14	
축산물	-	-	-	축산물	1,617	5	0.006
				돼지고기	0	0	
				닭고기	0	0	
				소시지	105	1	
				로알제리	1	0	
				기타낙농품	1,511	5	
임산물	38	0	-	임산물	16,686	26	0.03
합판	0	0		합판	3,254	7	
기타목재류	38	0		단판	400	1	
				섬유판	10,900	8	
				건축용목제품	30	0	
				목제식탁용품	10	0	
				목제장식품상자	1,001	2	
				기타목재생활용품	0	0	
				기타목재류	631	4	
				종자류	460	4	
수산물	150,135	119	0.1	수산물	714,158	359	0.5
미역	150,135	119		명태	78	0	
				김	72	0	
				미역	714,008	358	
				기타수산가공품	0	0	
합 계	286,083	384	0.5	합 계	1,383,299	2,104	2.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37호(2011.3.1~3.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소 계	196,690	794	7,149,178	212,010	1,086	7,458,069	14,607,247	308,891
2011.1	2,785	207	70,022	3,368	411	57,274	127,295	△12,748
2011.2	2,170	175	70,918	2,586	357	51,471	122,389	△19,447
2011.3	3,073	192	80,510	3,674	423	75,798	156,308	△4,712
소 계	8,028	259	221,450	9,628	510	184,542	405,992	△36,908
총 계	201,933	796	7,370,628	221,638	1,086	7,642,611	15,013,239	271,983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37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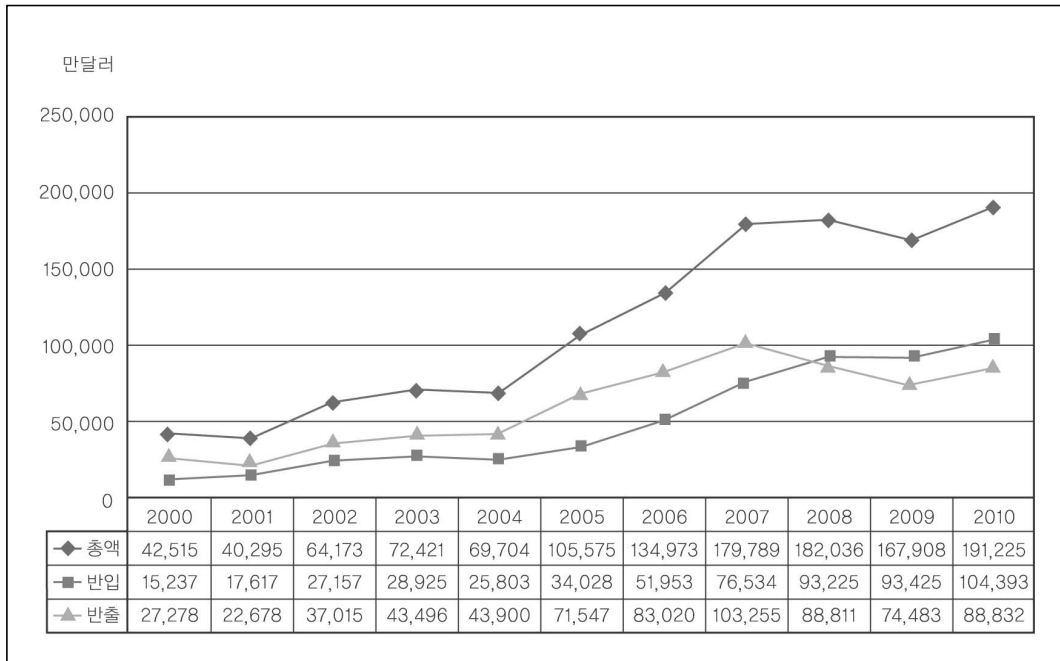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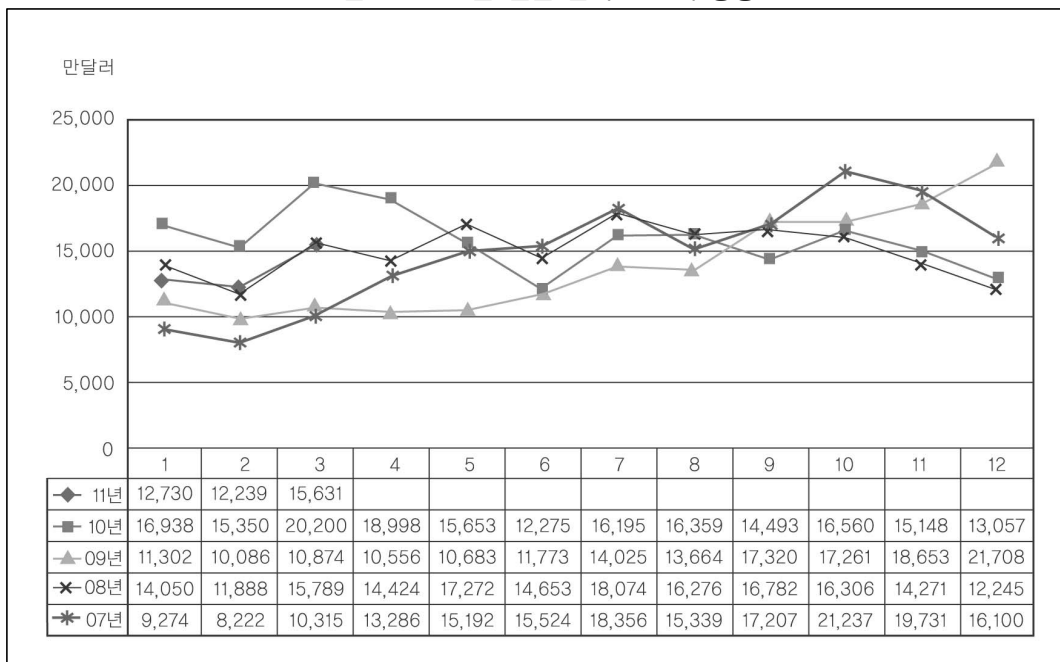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397	-	0	404	801	1,294	5	35	150	1,485	2,286	684
소 계	514,538	3,317	51,144	1,020,706	1,589,724	937,631	26,022	29,257	25,475	1,018,640	2,608,364	△571,084
2011.1	392	-	0	57	450	1,604	6	13	0	1,623	2,073	1,173
2011.2	193	-	0	17	210	1,230	9	34	122	1,395	1,605	1,185
2011.3	265	-	0	119	384	1,715	5	26	359	2,104	2,485	1,720
소 계	850	-	0	193	1,044	4,579	20	73	481	5,122	6,166	4,078
총 계	542,388	3,317	51,144	1,020,899	1,590,768	942,210	26,042	29,330	25,956	1,023,762	2,614,530	△567,00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35~237.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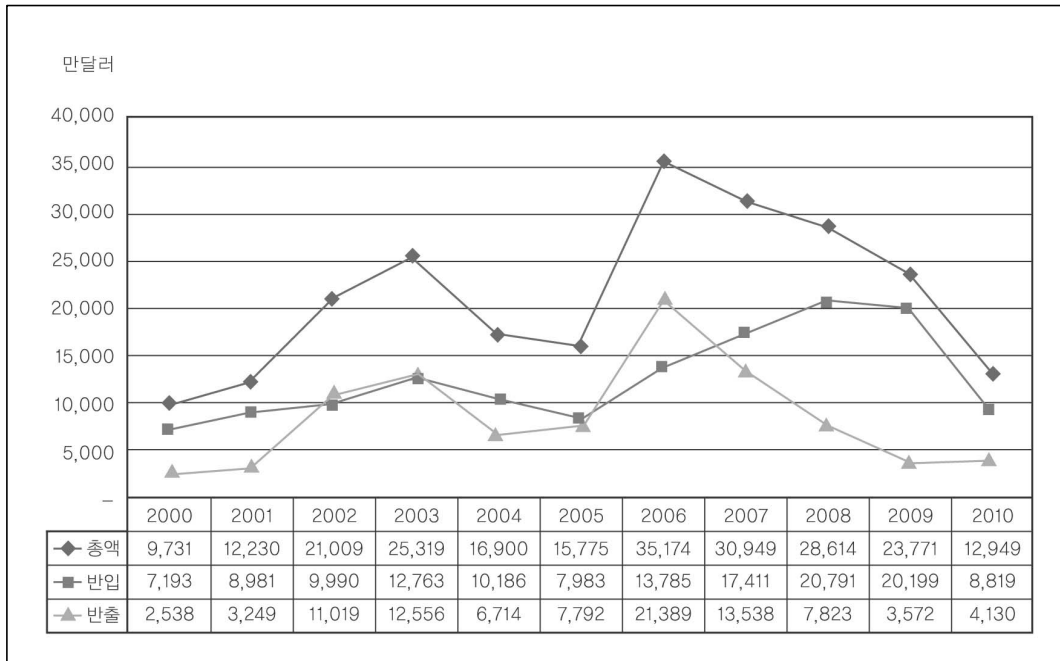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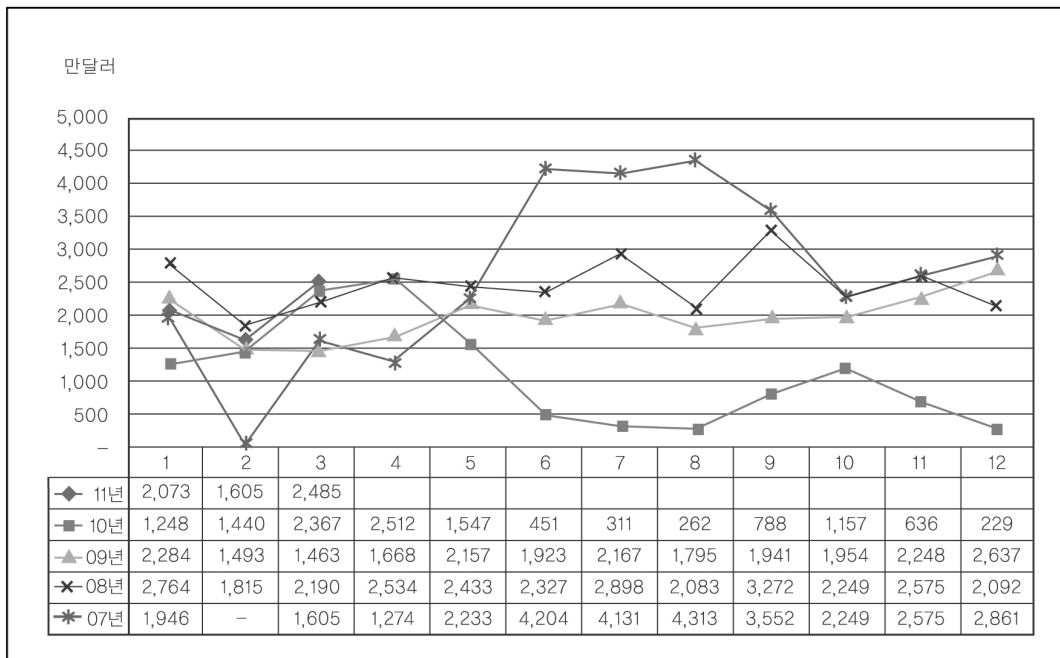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 경기도, 남북공동방역사업비 6억 원 증액

-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살충제, 말라리아 조기 진단 키트 등 방역물품을 북측에 전달한다는 방침과 함께, 올해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예산을 지난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힘.
- 도는 2008년부터 북쪽 접경지역에서 남하하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수를 줄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왔음. 2009년 신종플루, 2010년 남북경색 등으로 방역물품 지원 시기를 놓치면서 말라리아 환자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올해 적기에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인천·강원 지역으로 공동방역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제안하기로 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기도, 남북공동방역사업비 6억원 증액” 2011. 3. 8)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본격 채비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최근 정부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10여 개 회원단체 실무자와 함께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개별 단체들의 대북지원을 협의한 뒤, 북민협 차원에서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음.
- 북민협 회원단체 중 일부는 벌써 발빠르게 물품을 보내고 있음. 유진벨재단은 3억3천여만원 어치의 결핵약에 대해 정부의 대북 반출승인을 받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영양빵 7만5천개와 콩우유 3만7천봉을 함경북도 온성의 33개 유치원 등에 보내는 계획을 승인받았음.
- 기아대책은 라선특별시에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같은 지역 50개 소학교에 전달할 영양보충식을 보내려고 통일부에 반출신청을 냈으며, 월드비전도 황해북도 중화군에 경기도가 기증한 1억원 상당의 영양식품을 전달하고자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춘궁기 아사까지 거론하며 식량 요청” 2011. 4. 3)

□ 대한적십자사, 북한의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

-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음. 한적은 재앙관리 프로그램(disaster management programme)으로서 홍수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여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댐 건설, 제방 및 강둑 강화, 나무심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식량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식량제조 기계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한적은 영양부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을 돕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2천 개 이상의 병원과 북한 전체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8백만 인구에 필수 약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 및 원조 프로그램은 향후 몇 달 동안은 영양과 위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깨끗한 식수 공급 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할 것임.

자료: <http://www.ifrc.org/> (IFRC, "Red Cross helps boost food security" Apr. 7, 2011)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관련된 남북간 통지

(통일부, 2011.2.1, 2.9)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2월 1일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 적십자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재차 제의함.
- 1월 10일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하여 2월 9일 대한적십자사총재 명의 답신통지문을 발송함.
- 통지문 내용 :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일자 및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

☐ 이명박 정부 3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 2011.2.22)

〈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을 제안
- 분야별 대북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
 -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Agenda)로 설정 〉

- 정부는 2010년 대통령 「8.15 경축사」를 계기로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현실적·적극적 통일준비에 착수
-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2010.8)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2010.11)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반도비전포럼」(2010.5.13~5.14), 「코리아글로벌포럼」(2010.9.8~9.11) 등을 개최

- 향후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춘 정착지원을 추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2010.9)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을 구축
 - 입국자 누계는 1999년에 1,000명, 2007년에 1만 명을 기록한 이래 불과 3년만에 2만 명 돌파, 현재 총 20,407명 입국(2010.12 잠정)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력
 - 2010년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2,000여개 제공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총 21개),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2010.1.1), 의료급여 확대(2010.11.1) 등 제도 개선
- 입국자와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초기 적응교육과 청소년 교육지원을 강화

□ 2011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간협력사업 공모

(통일부, 2011.2.23)

- 2010년 9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음.
 - 2.16~24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공모
 - 2.16~28일까지 50개에 이르는 민간공모사업(지정 33개, 자유 14개 등)을 접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월 25일부터 3월까지 여성 및 무연고청소년 등 탈북소외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특화사업자(단체)를 공개로 모집함.
 -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미배정자텃터, 무연고청소년그룹홈, 방과후공부방 등을 공모
 - 3월 중에는 권역별로 주택미배정자텃터, 무연고청소년그룹홈, 여성텃터, 방과후공부방사업 등 신규사업을 재단과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모

- * 탈북여성쉼터 : 상담 재활교육 및 안식처 제공
- * 주택미배정자쉼터 : 임시보호, 주거알선 등
- * 무연고청소년그룹홈 : 가정, 부모역할 대행
- * 방과후공부방 : 맞벌이·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및 영유아들에게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공모사업 내용 〉

사업유형		세부내용
대분류	중분류	
지정 공모 사업 (33개)	① 남북주민통합	· 지역사회 내 남북주민통합 프로그램 ·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단체 컨소시엄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홍보
	② 취업지원	· 취업교육 및 알선사업, 인턴쉽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의 예비적 일자리 모색 사업 · 30~50대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적응교육
	③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해당 지자체 지역협의회(민·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
자유 공모 사업 (14개) 등	④ 지방단체 육성	·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 사업
	⑤ 기타 자유공모	·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유주제 · 비보호대상자 정착지원 및 케어 서비스

〈 공모사업 세부 내용 〉

사업유형		세부내용
대분류	중분류	
제한 공모	주택미배정자 공동생활쉼터 운영사업	· 심리·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검사,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등) · 여가프로그램(문화체험, 야유회, 후원의 밤 등) · 집단 프로그램(공동체 훈련, 홈스테이 등) · 취업교육 및 알선
	무연고청소년그룹홈 운영사업	· 학기중, 방학중 개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사교육 학습지 등) · 학기중, 방학중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학원수강 등) · 생활보호 운영 프로그램(생활여건, 의료지원 등) · 일반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학습, 대인관계 개발 등) ·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소재지 지역과의 연계)
	방과후공부방 운영 사업	· 학기중, 방학중 학습프로그램 운영(멘토링, 학습지도 등) · 학기중, 방학중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피아노, 체육 등) · 주간 및 Night Care 운영 · 개발프로그램(능력개발프로그램, 권역별 활동프로그램 등)

□ 천안함 피격 1주기,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부, 2011.3.22)

〈 그 동안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 〉

-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원칙을 견지
 -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핵심현안을 다루는 대화 추진
 - 3.1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준비
 -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 북한동향을 예의주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철저하게 대비
 - 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체류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에 만전

〈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 〉

- 북한의 ‘핵보유, 대외고립, 선군노선’을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노선으로 전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
-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 분배투명성을 강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 대내외 인권개선 노력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 노력 확대
-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기존 교역체계의 문제점(대금지급의 불투명성, 상사분쟁 해결 지원 미흡 등)을 개선
 -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 제도를 정비, 남북교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

- 통일재원 연구 및 공론화 추진
 -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3대 공동체(평화, 경제, 민족) 형성 방안 연구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등 통일기반 조성 공론화 실시

- 통일재원 추계, 통일재원 조달 원칙 및 방안 마련
- 「코리아 글로벌 포럼」, 주변국과의 「한반도 미래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 통일리더 양성 및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지원 등 젊은 세대 대상 통일교육 실시
 - 학교 IPTV 등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노력 지속
 - 상시 상담센터 운영, 창업지원(컨설팅, 교육, 자금대출),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 정착 지원 등

□ 개성공단 6개 기업 경험보험금 등 지급

(통일부, 2011.3.23)

- 정부는 3.14(월) 부터 제2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서면심의하여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 보험금 지급 등 기금지원(안)」 등 4건을 심의 또는 의결
-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 보험금지급 등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5.24조치' 이후 공장건축이 중단되어 손실을 입게 된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대한 보험금 등 총 46억원 한도에서 지원함.
 - 보험금 지급액 : 43억 2,957만원
- 기금운용관리규정 전부개정(안)
 - 2010년 남북협력기금법령 개정예 따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
-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결산보고(안)
 -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자금 운용 실적 등을 보고함.
 - 수입 1조 9,533억 원, 지출 1조 197억 원, 여유자금 9,336억 원
-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자산운용 시 단·장기 비중 및 목표수익률 등을 일부 조정함.

□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 25개 사업 확정

(통일부, 2011.3.25)

- 통일부는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3월 24일 지원사업에 공모한 55개 민간단체 중 최종 25개 단체에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
- 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여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의거하여 심사함.
- 지원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통일문제 국민합의 기반강화(4개사업 7천만원)
 - 평화통일증진사업(5개사업 1억2천만원)
 - 북한사회바로알리기(7개사업 1억3천만원)
 - 통일교육(9개사업 1억8천만원)
-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통일부, 2011.4.5)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5일 공포함.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기존 교류협력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금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어서 행정의 재량영역이 국민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았음.
- 이번 개정안은 위반횟수제도 도입, 과태료 경감·가중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부과시 부과금액을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참고 자료 1 】

경협보험 제도 개요

〈 경협보험 제도 〉

-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사업불능 또는 사업정지(1개월)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
 - 담보위험 : 수용, 송금, 전쟁, 약정불이행, 불가항력
 - 기업별 가입 한도 : 70억 원
 - 부보율(보상비율) : 경제 특구 90%, 일반 70%
 - 보험요율 : 0.6%(중소기업 0.45%)

〈 가입 현황 〉

- 경협보험 총 가입업체 : 156개 사, 5,235억 원(성립 3,789억 원)
- 개성공단 : 153개 사, 5,155억 원(성립 3,785억 원)
 - 제조업체 : 가동 96개 사, 건축 10개 사, 미착공 등 기타 30개 사 가입
 - 지원·편의시설 : 17개 사 가입

〈 보험금 지급 절차 〉

- 담보위험 발생 → 보험사고 발생 통지(기업) → 보험금 신청(기업) →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실액 산정 → 보험금 지급 결정 → 보험금 지급

【 참고 자료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통일부장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통일부장관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최초로 한 경우로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할 수 있다.

라. 통일부장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중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3호	15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5호	15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6호	150만원	300만원

【 참고 자료 3 】

남북관계 주요통계

통일부, 2011.2

□ 남북 인적·물적 왕래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계
남→북 (방 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048	875,732
북→남 (방 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0	7,867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048	883,599

※ 관광인원 제외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1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145,802	166,181	14,841	859,186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140	37	176,170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148,336	168,321	14,878	1,035,356

남북 선박왕래 현황(편도기준)

단위: 회, 만톤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계
선박 (운항횟수)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9,365
선박 (물동량)	14	63	34	61	56	98	70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91	106	0	7,410

□ 남북 교류협력 분야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70	7,218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57	7,515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127	14,733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2,299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명

구분			'91~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경제	민간 경협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74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6	1	291
		신고														12	11	-	23
사회문화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	155
계			3	3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1	543

※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 개성공단사업 분야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1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110,464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한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남한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804
합계	8,111	11,980	23,323	39,986	43,496	47,088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인도적 과제 추진 분야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합계
정부 지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44	913	1,075	1,016	1,211	1,240	2,139	1,767	197	217	112	72	13,514
	민간기금 지원액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1,153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133	72	23,395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	8,462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332	72	31,856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6	-	3,842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	11,397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33	21	6	-	1,699
													(383)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47)	(16)		(3,232)
정부차원	방북상봉										1	5	4	5	5	3	1	1	4	1	3	2	1	-	36
											(2)	(18)	(9)	(22)	(24)	(15)	(5)	(5)	(19)	(5)	(5)	(4)	(2)		(135)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302	302	-	7,337
		(157)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2,399)	(2,176)		(53,070)
	서신교환												39	623	9	8	-	-	-	-	-	-	-	-	679
													(39)	(623)	(9)	(8)									(679)
민간차원	방남상봉	30											201	100	-	-	-	-	-	-	-	-	-	-	331
		(81)											(1,720)	(899)											(2,700)
	방북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195	191	-	3,498
정부차원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888)	(886)		(15,443)
	화상상봉																	199	80	278	-	-	-	-	557
민간차원																		(1,323)	(553)	(1,872)					(3,748)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1.4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중앙긴급구호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중앙긴급구호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중앙긴급구호자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룩셈부르크 33
17차 '11.1~12	-	1,036	-	중앙긴급구호자금 500, 스위스 397, 스웨덴 65, 프랑스 39, 이탈리아 34
총 계	-	179,525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1)

표 2. 2011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4.30)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스웨덴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 사업
	CERF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 (CERF 11-FAO-013)
	소계	799,016	
PMU-Interlife	스웨덴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스위스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청	스위스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TGH	프랑스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
UNICEF	CER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이탈리아	343,407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소계	843,407	
UNPF	CER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WFP	스위스	537,634	식량지원
	CERF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소계	3,737,463	
WHO	CERF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합 계		21,780,25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금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1)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4.30)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스웨덴	FAO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CERF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CERF 11-FAO-013)
		소계	799,016	
식량	프랑스	TGH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CERF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스위스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스웨덴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스위스	WFP	537,634	식량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소계	8,069,037	
보건	이탈리아	UNICEF	343,407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CERF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CERF 11-WHO-016)
	CERF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소계	1,493,361	
합 계			10,361,41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1)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1.1.1~4.30)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HO	500,154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1-WHO-016)
	UNPF	149,800	모성 보호사업(CERF 11-FPA-013)
	UNICEF	500,000	4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1-CEF-013)
	WFP	3,199,82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CERF 11-WFP-015)
	FAO	650,000	2011년 취약농가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긴급지원 (CERF 11-FAO-013)
	소계	4,999,783	
프랑스	Premier Urgenc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Triangle	197,109	취약계층 식량지원사업
	소계	394,218	
이탈리아	UNICEF	343,409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스웨덴	FAO	149,016	201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안보지원 연계성 강화사업
	PMU-Interlife	506,711	협동농장 내 식량안보사업
	소계	655,727	
스위스	WFP	537,634	식량지원
	SDC/SHA	3,430,64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3.01)
	소계	3,968,279	
합 계		10,361,41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1)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 UN, 상반기 긴급구호기금 500만 달러 대북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의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예산이 미화 5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 이는 작년 상반기 800만 달러보다 37.5% 줄어든 규모임.
-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과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이 협의를 거쳐 배정된 지원금을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엔, 상반기 긴급구호기금 500만달러 대북 지원", 2011.1.19)

☐ OIE, 방북 활동 중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 전문가팀이 지난 달 28일 북한을 방문해 활동 중이라고 전함. 구제역 전문가팀은 OIE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파견된 수의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10~14일 동안 북한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방북 중인 전문가팀이 현재 수의 당국과 함께 구제역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 활동을 하는 한편, 어느 백신이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함.
- 구제역 발생으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FAO는 이날 성명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들이 제대로 논밭을 갈 수 없고 수확작업에 동원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구제역 전문가팀, 방북 활동중(OIE)", 2011.3.4)

☐ FAO, 북한에 대한 긴급 백신 및 관련 장비 지원 요청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OIE 합동 조사단은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2

월 27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북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이후 FAO는 구제역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달러 상당의 백신 및 관련 장치를 북한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조사 결과 구제역을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 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또한 13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언급하였음.

자료: <http://www.fao.org/> (FAO, "North Korea: FAO says urgent vaccine and equipment needed to contain Foot-and-Mouth Disease", Mar. 24, 2011)

☐ UN, 북한에 식량 43만 톤 지원 권고

- 유엔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한 북한에 대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긴급한 국제 식량 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면서 43만 톤의 국제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북한의 9개 도, 40개 군 방문을 통해 식량실태를 조사하였음.
- 유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여름의 홍수와 혹독한 겨울 등 일련의 충격들이 북한을 식량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5~7월 사이 식량부족기가 시작될 무렵 북한의 식량이 바닥나 영양실조와 다른 질병들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 대해 4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음.

자료: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유엔 "북한에 식량 43만톤 지원 권고"", 2011.3.25)

☐ WFP, 4월 대북지원금 1천만 달러 모아

- 세계식량계획(WFP)이 4월 들어 1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5월부터는 대북식량 지원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방송에 따르면, WFP는 올해 1~3월에 걸쳐 진행 중인 대북지원 사업자금 3,2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러시아 500만 달러, 브라질 400만 달러, 스위스

300만 달러 등의 지원금을 받아 현재 총 4,300만 달러 가량의 지원금을 확보했음.

- WFP는 매달 약 6,500톤의 식량을 지원하려던 계획과는 달리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난 3월에는 약 30% 수준인 2천 톤 가량의 식량만 배급하는데 그쳤음.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모금된 자금이 필요한 비용을 넘어섰으며, 곡물을 구입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배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5월 중순부터는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지원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4월 대북지원금 1천만 달러 모아 <RFA>", 2011.4.12)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협력위 올해 재개 사실상 합의

- 러시아와 북한은 2007년 이후 중단된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밝힘.
- 지역개발부는 러·북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경제협력위)의 두 정부 대표 간 회담이 끝난 뒤 낸 언론 발표문에서 “러·북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위 5차 회의 개최의 가능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문제 및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3각 투자협력 문제도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한-러시아, 경제협력위 올해 재개 사실상 합의", 2011.2.22)

☐ 미국 구호단체들, 대북식량 긴급지원 촉구

- 대북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5개 구호단체(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머시 코어, 사마리탄즈 퍼스, 월드비전)가 북한 식량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긴급지원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함.
- VOA는 “5개 구호단체 소속 전문가 7명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간 북한을 방문해 식량실태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단체는 주민들의 극심한 영양결

핍을 목격하고 추수에 앞서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5월 이전에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들 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에서) 여름철 홍수로 옥수수과 쌀 수확량이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66년 만에 가장 추웠던 한파로 밀과 보리의 수확은 물론 감자농사도 영향을 받았다”며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올해 예상수매량을 32만 5천 톤에서 20만 톤으로 줄였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이 중 극히 소량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또한 “지난 6개월간 저체중아 출산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했고, 식량난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구호단체들, 대북식량 긴급지원 촉구", 2011.2.24)

□ 미국, ‘대북 식량지원 재개’ 본격 행보

- 미국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한 북한 식량부족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이후 대북 식량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지원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북·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유엔이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히 식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데 따라 미 행정부가 북한의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미국은 유엔 조사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음.
- 또한 식량 관련 북·미 협상은 조지W부시 행정부가 2008년 5월 북한과 합의한 식량분배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토대로 지원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자료: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본격 행보", 2011.3.26)

□ 국제 구호단체들, 대북 식량 긴급지원 호소

-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취약계층 수백만 명에 긴급 식량 지원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인터넷 판)이 보도했음.

- 구호단체 ‘세이프 더 칠드런’과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 아일랜드 ‘컨선 월드와이드’ 등은 이 호소문에서 취약계층 수백만 명이 칼 끝에 선 듯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식량지원 확대를 호소하였음.
- 이 단체들은 나쁜 날씨와 가축 질병으로 식량생산이 타격을 받은데다, 국제 곡물 및 유가의 상승으로 수입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지금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만성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춘궁기를 견디도록 돕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층, 장애인, 환자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식량뿐만 아니라 의약품, 물, 위생설비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 SDC의 카타리나 젤위거 국장은 “북한 문제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 귀결되면서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원칙들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구호단체들, 北 식량 긴급지원 호소 <英紙>, 2011.3.30)

□ 프랑스, 북에 21만 달러 식량지원

-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고아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해 2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 Urgence)’의 담당국장은 “프랑스 외무부가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21만달러(약 15만 유로)를 기부했다”며 “올해 추수 전까지 7개월 간 850명에서 1천 명의 고아와 장애인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단체는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심각하며,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대북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쌀과 식용유, 설탕, 분유, 두유 등의 곡물을 향후 곡물가격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프랑스, 北에 21만달러 식량지원 <VOA>", 2011.4.2)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북한 결핵·간염환자에 식량지원

- 미국의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달 북한 내 결핵·간염 병원 및 요양원 29곳에 28만 달러 상당의 지원식량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 이 단체는 지난 달 북한에 통조림육, 통조림야채국 등 식량과 평양 국립결핵병원 재정비를 위한 건축자재 등을 실은 대형 컨테이너 3개를 배편으로 보냈으며, 이는 중국을 거쳐 늦어도 5월 초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하여 병원과 요양원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 단체는 작년 말 북송 물품의 도착상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달 19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한 이후 홈페이지에서 “북한은 배급할 수 있는 식량이 6월이면 완전히 소진돼 약 60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이 공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며 “지난여름의 홍수 때문에 가을 수확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봄에 수확하는 밀과 보리의 양도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NGO, 북한 결핵·간염환자에 식량지원", 2011.4.15)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2011.1-12	-	3,001	6,993	155	6,251	550	16,952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4	4	1,704	1,390	63	4,120	8,024	15,305
5	0	4,205	1,902	93	4,184	2,831	13,215
6	0	2,416	1,154	21	4,718	1,576	9,885
7	0	3,396	2,459	0	1,219	0	7,074
8	0	2,541	2,088	0	953	33	5,615
9	0	1,488	4,922	35	4,103	808	11,423
10	0	1,314	5,270	39	5,715	496	12,834
11	7	2,459	3,656	0	6,343	86	12,551
12	0	1,902	5,002	78	5,836	150	12,968
2010.1-12	360	23,509	35,439	468	40,241	15,134	115,169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2011.1-12	-	10,120	12,243	240	15,939	890	39,432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1년 1~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39,43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7,339톤과 비교할 때 5.6% 증가하였음.
- 2011년 1~3월 북한이 곡물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1,695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30만 달러에 비해서는 18.5% 증가하였음.
- 2011년 1~3월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25.7%, 쌀 31.0%, 밀가루 40.4%, 콩 2.3%임.
- 북한이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할 때 통상 1~2월의 수입량은 크지 않은데 이는 중국의 곡물 수출제도에 기인함. 중국 상무부는 쌀, 옥수수 등을 국영무역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국영무역기업만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수출쿼터를 배정받은 국영기업은 물량확보를 위해 다수의 기업과 계약, 합작 등을 통해 쿼터를 배분하여 위탁 수출함. 통상 1~2월에는 곡물 수출쿼터의 배정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출쿼터의 배정이 완료되었더라도 수출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 중국에서 쌀 수출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국영무역기업은 중량집단유한회사(中糧集團有限公司, COFCO)와 길림식량집단유한회사(吉林糧食集團有限公司, JILG) 2개 기업만이 존재함.¹⁾
- 2011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30달러임.
-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쌀 571달러, 옥수수 297달러, 밀가루 392달러, 콩 618달러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모든 곡종의 가격이 상승하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쌀 가격은 23.0% 상승하였으며 옥수수, 밀가루, 콩 가격은 각각 24.1%, 18.3%, 3.0% 상승하였음.
- 2011년 3월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19달러임.²⁾
- 중립종 쌀은 전년 동월에 비해 19.0% 상승하였으나 장립종 쌀은 3.5% 하락하였음.

1)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성명환. 2011. 3. “세계 곡물 가격 동향.” 「세계농업」. M45-1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년 3월 미국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밀 선물가격은 톤당 308달러(hard red winter 2등급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2%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0.2% 하락하였음.
- 2011년 3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6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83.4%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2.2% 하락하였음.
- 2011년 3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96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41.7%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3.1% 하락하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2011.1-12	4,390	-	0	41	4,431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4	27
4	0	0	0	7	7
5	5,105	0	0	11	5,116
6	2,122	0	0	5	2,127
7	17,436	0	0	0	17,436
8	2,221	0	0	1	2,222
9	331	0	0	3	334
10	3	0	0	0	3
11	288	0	0	0	288
12	398	0	0	0	398
2010.1-12	41,191	0	0	31	41,19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0~2011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2011.1-12	25,366	-	1	99	25,466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0	160,553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8	0	0	46	287,2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1년 1~3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25,466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443만 달러임.
-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의 62%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1/3 수준임. 중량 대비 수입액 비율이 더 낮은 것은 금년의 경우 비싼 요소 대신 가격이 저렴한 유안을 주로 수입하였기 때문임.
- 1~3월에 수입한 비료는 대부분 유안(Ammonium sulphate)으로 요소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이 수입한 비료의 대부분이 요소였던 것과는 대조적임.
- 요소는 유안에 비해 성분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증수 효과는 훨씬 큼. 성분 함량을 고려할 경우 2011년 1분기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임.
- 2011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안 비료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7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상승하였음.
- 2011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Urea)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52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8달러와 비교하면 60% 상승한 것임.
- 2010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금년 들어 수입 비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이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과 중국정부의 비료 수출 통제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의 비료 수출관세 인상목적은 1) 수출억제를 통한 자국내 공급증대로 내수가격 안정화, 2) 고갈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원의 유출 억제(인광석, 석탄) 등임. 과거 중국정부는 국제 비료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비료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15일부터 자국비료에 수출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수출관세를 인상함. 전 세계 주요 비료 제품 및 원료 생산량 중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감소로 국제가격이 급등하였음. 중국정부의 수출관세 조정을 통한 수출억제로 국제비료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원안보 강화에 따른 추세적 수출량 감소가 예상되어 국제비료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¹⁾

1) 우리투자증권, 2010. 11. 25. “비료산업: 중국 비료수출관세 인상 압박, 국제비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http://imgstock.naver.com/upload/research/industry/1290737032143.pdf>)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전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중요요구¹⁾

장 소 향

- 경제관리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휘기능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중의 노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전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임.
- 경제관리를 전략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것은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것임. 즉 경제관리의 기본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의 체계인 관리사업체계와 경제관리 조직들의 구조와 직능, 그 상호관계의 체계인 관리기구체계, 관리방법을 능동적으로, 과학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것임.
- 경제관리를 전략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 지켜야 할 요구로는 첫째,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자 문제를 확고히 장악해야 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원칙을 지키는데서 당의 정치적 지도가 경제기술적지도에 우선해야 함.
 -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으로 더욱 개선해나가야 함.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랫단위의 창의성을 옹계 결합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는데서 국가의 통일적지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치도덕적 자극, 정치적방법이 기본으로 되도록 체계와 방법을 더 개선해야 함.
 -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함. 경제관리는 마땅히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함.

1) 경제연구, 제150호 제1호, 2011.

- 둘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경제관리 개선의 근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함.
- 계획화공간을 기본으로 이용해야 함. 즉 모든 경제활동이 철저히 계획화되고 계획 밖의 그 어떤 경제활동도 허용해서는 안됨. 이를 바탕으로 계획화공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관리를 더욱 더 개선해나가야 함.
- 가치공간과 노동보수공간을 계획적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옹계 이용해야 함. 이는 이러한 공간들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 복종시키도록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 본질적 특성을 더 잘 발양시키기 위한 관리체계와 방법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함.

논두벌농사를 위한 논앞그루작물로서의 감자재배의 유익성¹⁾

방 경 모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 당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감자농사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지적하였음.
- 두벌농사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만큼 논앞그루로 알곡작물을 많이 심어야 함. 실험결과에 의하면 논앞그루 알곡작물 가운데 제일 소출이 높은 것은 감자, 그 다음은 가을밀, 가을보리, 봄보리 순위였으며, 가장 낮은 것이 완두였음.

표 1. 논앞그루알곡작물의 소출량

시험작물	파종시기(월, 일)	수확시기(월, 일)	정보당 소출(kg)
가을밀	9.28	6.19	3,820
가을보리	9.28	6.19	3,210
봄보리	3.5	6.19	2,100
감자	4.2	6.19	5,310
완두	3.10	6.19	1,300

- 두벌농사는 단벌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지출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두벌농사에서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것은 전반적인 농업생산조직과 알곡생산량을 늘리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논앞그루 감자파종은 벼모판씨뿌리기를 시작할 때에는 거의 끝나며 탈곡공정이 없기 때문에 논벼의 김매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1) 경제연구, 제150호 제1호, 2011.

- 벼품종과 모내기날짜와 화학비료시비조건이 동일한 조건에서 앞그루작물의 그루와 뿌리가 뒤그루논벼소출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벼단작재배에 비하여 밀, 보리재배 뒤그루에서 논벼소출증수량이 정보당 188-312kg으로써 3-5%에 불과하였으나 감자뒤그루에서는 750kg으로 122%로 훨씬 높아짐.

표 2. 앞그루알곡작물의 그루 및 뿌리가 논벼의 소출에 주는 영향

재배형식	포전에 남은그루 및 뿌리량(t/정)	논벼소출(kg/정)	증수량(kg/정)	증수율(%)
벼단작재배	-	6,200	-	100
밀뒤그루벼재배	2.7	6,388	188	103
보리뒤그루벼재배	2.4	6,512	312	105
그루벼재배	2.0	6,950	750	112.1

- 논앞그루로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두벌농사의 알곡정보당 총소출량 차이가 많음.
- 감자 대 논벼의 두벌농사재배형에서 논벼단작재배에 비하여 정보당 알곡소출량이 2배나 높아짐.
- 알곡 대 알곡 두벌농사에서 논앞그루알곡작물로서 밀, 보리를 심는 것보다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 훨씬 우월함이 증명됨.

표 3. 논앞그루알곡작물의 종류와 두벌농사소출

	앞그루			뒤그루		두벌농사	
	파종	수확	알곡소출(kg/정)	모내기(월, 일)	벼소출(kg/정)	알곡계(kg/정)	증수량(kg/정)
벼단작	-	-	-	5.31	5,100	5,100	-
밀+벼	9.28	6.19	3,920	6.20	4,780	8,600	3,500
보리+벼	3.5	6.49	3,220	6.20	4,910	8,170	3,070
감자+벼	4.2	6.19	5,310	6.20	5,720	11,030	5,930

- 이상의 실험자료들은 알곡 대 알곡 논두벌농사에서 앞그루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제일 높은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E02-2011-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제1호

찍 은 날	2011. 4	펴낸날	2011. 4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